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13 1982년 5월3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May 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독립 이민 제한

5월1일부터, 고용계약서 첨부필수

실업구제책으로 국내인 우선고용원칙

(오타와)연방정부는 5월1일을 기해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의 기술자라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들의 이민허가를 제한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캐나다 이민은 보다 까다로와졌다.

29일밤 로이드·액쉬디 이민장관은 날로 악화되는 캐나다의 실업사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캐나다 유입을 제한시켜 캐네디언들의 취업기회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81년도에 약13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 2만4천명이 독립이민자들로 이민후 직장을 목적으로 이민온 사람들이었다.

연방정부는 이민제한 정책을 금년말까지 잠정실시, 82년도의 단독이민수를 약 2만명선으로 줄일것이라고 상원인력위원회의 〈캐나다인 우선정책회의〉에서 액쉬디장관이 밝혔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성은 이민 비자신청자를 1)교육(12점 만점), 2)특수직업훈련정도(15점), 3)경력 (8점), 4)직업수요(15점), 5)고용계약여부(10점), 6)이민후 정착지(5점), 7)연령(10점), 8)영어나 불어구사력(10점), 9)인품(10점), 10)친척여부(5점)로 심사, 100점 만점에 50점이상, 투자이민자는 점수가 최소 25점을 맞아야 했다.

그러나 5월1일부로 가족·클래스나 피난민·클래스가 아닌 일반 이민신청자는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제4)항인 직업수요(15점)에서 무조건 0점을 맞게 된다.

고용계약은 캐네디언 고용주가 이민성에다 캐나다에서는 적당한 고용인을 구할 수 없어 반드시 이민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인터뷰단계를 끝낸 이민신청자는 새 조처에서 제외, 종전대로 이민절차를 밟게되나 실업사태로 캐나다 정착이 어려워질 것임을 경고하는 고용-이민성의 서한을 받게된다.

작년이후 최근까지 약2백명의 한국항공정비사및 컴퓨터기술자들이 대거 단독이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일부 기술자들은 이민이후 '직장을' 못구해 이민성에 항의하는 사태까지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액쉬디장관은 컴퓨터기술자중 기계정비사, 특수엔지니어등 고려될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기술로 이민오던 한국계이민은 이번 제한에서 예외될 수 있음도 비쳤다.

◆29일밤 세인·폴 성당에서 있은 김수환 추기경 강론에 모인 600 여 교포청중들. 우상은 추기경복차림의 김추기경

社說 김추경 내방

－교회및 한인사회 차원에서의 평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의 토론토 내방을 맞아 이곳 한인사회와 종교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특히 가톨릭계는 축제기분에 들떠 있다.

추기경이란 아득높은 고위층 종교 지도자의 방문은 10년에 한번있기 어려운 경사중의 경사이기 때문이다.

김추기경의 이번 내방은 한인천주교회가 마련한 한인가톨릭회관 준공식(축성)과 120명 영세신자의 견진성사 주례차 찾아온 것으로, 당사자인 교회측으로서는 2중, 3중의 경사인것이다.

일반교민측으로 볼때 김추기경은 한국민중의 대표적지도자중 한분으로 집권층에 대해 때로 예리한 비판의 경고로 옳은 정의 수행을 촉구하는 강력한 발언자이며, 민주·민권의 수호자로 국민의 기대와 촉망을 한몸에 모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민족의 차원에서 소중한 존재인 그의 내방을 교포들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품으로 볼 때, 김추기경은 위엄이나 고자세를 애써 누르고, 무던하고 자연스런 태도로 친근감을 느끼게하는 그 인품과 덕성이 미더운 부성(父性)을 직감케 해준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접해본 사람들은 10년지기 같이 친밀감을 품고 애써 접근하려 한다.

이 점이 김추기경의 인간적 매력이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1968년 김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좌할때, 주교로서의 표어로 "Pro Vobis et Pro Multis"(여러분과 모든이를 위하여)를 택한것은 그의 스승 그리스도처럼 철저한 봉사자의 자세를 깊이 속다짐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신자수 2천5백명을 헤아리는 한인사회내 맘모스(?) 교회로 꼽히는 토론토한인천주교회는 60만달러 목표로 회관건립기금 모집을 전개한지 1년반만에 목표액의 3분의2에 해당되는 40여만달러가 걷혔으며, 교구청의 협조를 힘입어 이번 회관개축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동회관은 주일학교·한글학교등 교회내부 행사를 비롯하여 강연회나 전시회등 대외적 문화행사에도 쓰여질 다목적 시설로 이곳 한인사회에 기여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김추기경의 내방을 계기로 신앙중신에 추진력을 얻은 신자들은 삶의 보람과 일상생활에 차원 높은 활력소를 배가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일반교민들도 해외 멀리 떨어진 이 고장에서 지도자의 체온을 가까이 대하게 됨으로써 이민생활의 고적감이나 고된 일상에 위안과 격려를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두차례에 걸친 추기경의 강연에서 참가자들은 유형·무형의 힘을 얻고 고된 일상의 십자가의 뜻을 각자나름으로 깨닫고, 삶의 보람을 파악했기를 기대한다.

한국일보
533-2361

"신부구속 정부에 도움안돼"

김추기경, 600여 교포에 강연

김수환 추기경은 "최기식 신부등 종교인의 구속사태가 한국정부에 도움될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언론기관의 보도로 종교인들에 대한 오해도 불러 일으켰으나 결과적으로는 종교기관을 선전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도착 2일째 김추기경은 토론토 퀸스트릿의 쎄인·폴성당에서 신자및 일반교포들 6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사태로 한국의 정국이 불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국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한 김추기경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강론을 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진화론도 조물주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인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김추기경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것이 많다면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했다.

방문 2일째를 맞는 김추기경은 29일 토론토대교구 카터 추기경을 방문, 양국교회 관심사를 논의하고, 하오에는 안브로직 주교의 숙소방문을 맞아 토론토한인성당 문제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쎄인·폴성당에서 행한 김추기경 연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수백년을 두고 인간 자체를 연구했으나 자연생명체로서 물질적 근원조차 해결 못했다. 이밖에 정신적, 심리적 인간규명은 더욱 알 수 없다. 더구나 인간의 양심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명할 수 없다.

유한한 물질의 세계도 규명 못하는 인간이 무한한 정신적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숭이가 인류의 전신이라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진화론도 조물주의 뜻에 따라 이루어 졌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물질의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윗단계에 영적존재가 있다. 영적존재위에 있는 것이 바로 조물주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완전하다.

믿음이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하느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혼돈과 불안을 면할 수 없다"(참회록)에서 성 아우구스틴이 한 말은 인생의 목적을 잘 지적해 준 명언이다.

사람의 궁극목적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 하느님으로 영혼이 가득 차는데 있다.

◁금주의 행사▷

(5월3일～9일)

◆6일(목) 하오 6시30분 베타와이즈멘즈클럽 월례회
곳: 한인 YMCA(931 College St, Tor.)

◆7일(금)～9일(일) 하오 7시30분 심령부흥사경회
강사: 고원용 목사
곳: 토론토영락교회(126 O'Connor Dr, 오코너×페일)
연락처: 423－9880

◆8일(토) 낮 12시 제2회 재캐나다 체육회장배 볼링대회(체육회 주최)
곳: Playtime Bowlerama(33 Samor Dr, 더프린×로렌스)
연락처: 622－0224 (Mr. 오)

◆8일(토) 상오10시30분～하오5시 성산교회 바자
곳: 성산교회 (1239 Jane St, 웨스톤×제인)

◆9일(일) 하오3시 한맘노년회 강연회
강사: 주매분 박사(전 춘천성심여대학장)
곳: 쎄인·폴 성당
연락처: 천주교 노인회 (863－0415)

◆9일(일) 하오8시 제1회 학생피아노리싸이틀
곳: Heliconian Club (35 Hazelton Ave,)
연락처: 968－9370 (The Piano Academy of Toronto)

社 告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

본사는 금년부터 어린이 야구대회를 주최합니다.

한인사회의 장래를 짊어질 소년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북미에서 인기 높은 야구에 대한 2세들의 관심을 북돋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어린이들의 아이덴티티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행사는 오는7월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시및 장소는 장소가 예약되는대로 곧 발표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서"라는 이 행사의 모토에 찬동하시는 교회학교, 한글학교등 많은 단체의 참가를 바랍니다.

주최 : 토론토한국일보사
후원 :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브램돈스포츠사

오늘의 예금금리 (4월23일 부터)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 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 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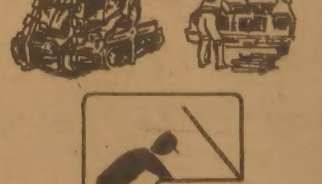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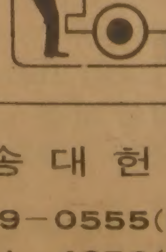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제14주년 개관기념및 이경태 사범8단 승단 기념을 자축하는 뜻에따라 5월 한달동안 한인교포 신입생에 한하여 40% 특별할인 우대합니다.

KYONG LEE TAEKWON-DO CENTER
중앙도장: 2281 YONGE ST. (6Doors North of Eglinton)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E. (Just East of Pharmacy, Plaza) 759－2500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피아노
리싸이틀에의 초대

피아노 아카데미 오브 토론토는 오는 5월9일 아래와 같이 제1회 학생피아노 리싸이틀을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제1회 리싸이틀에는 12명의 본 아카데미학생이 바하, 모찰트, 베토벤, 듀비스 등 작곡의피아노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또 리싸이틀이 끝난후에는 곧 리셉숀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한인 교민들의 내왕을 환영합니다.

～아 래～
일 시 : 1982년5월9일(일) 오후8시 정각
장 소 : HELICONIAN CLUB
35 Hazelton Ave.

* 입장무료 *
★더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The Piano Academy of Toronto
Call ☎ : 968－9370
109 Dupont Street Toronto, Ont. M5R 1V4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MAY 3 1982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캐나다 동메달에 그쳐

세계하키대회, 그레츠키 베스트6에

(헬싱키) 29일 세계하키대회 마지막날 스웨덴을 6:0 셧아웃, 은메달을 노리던 캐나다는 소련이 느긋한 경기운영으로 체코와 0:0 무승부를 이뤄 동메달에 그쳤다.

캐나다는 체코와 승률에서 동률을 이루었으나 득실면에서 8:6으로 3위에 머물러야 했다.

9연승의 소련팀은 체코와의 마지막 경기와 상관없이 금메달을 확보, 무성의하게 게임을 운영했다.

세계하키선수권대회 종료후 캐나다팀의 주장 빌·바비와 센타 웨인·그레츠키는 세계베스트6에 선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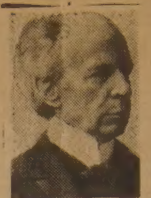
한편 29일밤 뉴욕에서 열린 NHL플레이·오프 준결승 2차전에서 뉴욕·아일랜더즈는 쾌백·노즈딕을 5:2로 물리쳐 2연승을 기록했다.

캠벨·컨퍼런스에서는 시카고가 뱅쿠버를 4:1로 물리쳐 양팀 모두 1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하키왕 그레츠키! 당신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 그레츠키의 인기는 북미뿐 아니다. 스웨덴과의 마지막날 경기에서 3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레츠키를 따르는 핀랜드의 10대소녀들.

"최장수 수상될 터"

트루도 은퇴안해



◆지금까지 최장수 수상인 윌프리드·로리에경

◆트루도 수상

(오타와)트루도 수상은 앞으로 최소 2년은 수상직에 머물러 있을 것이므로 공연한 은퇴설은 퍼뜨리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주 자유당 간부회의에서 트루도수상은 한 측근에 지금까지 가장 오래 수상에 재임한 윌프리드·로리에경의 기록을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루도처럼 프랑스계 캐네디언 수상이었던 윌프리·로리에경은 15년3개월간 수상으로 지냈었다.

트루도수상의 발언에 대해 발언내용과는 달리 기록을 깨기전 은퇴, 예상을 깨려는 의도라는 설도 있다.

실업악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전하는 트루도 수상의 인기는 지난 6년간 가장 낮은 선으로 떨어진 것으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전화 기본요금인상

5월부터 가정용 $11.65

메트로 토론토지역 전화 기본요금이 5월1일부터 오른다. 가정용은 종전의 $10.80에서 85센트 오른 $11.65, 비지네스용은 $35.55에서 $38.40으로 오른다.

벨·캐나다는 인상이유를 전화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한 시설확충및 인건비증가와 인플레이션을 들었다. 메트로는 현재 북미에서 가장 전화선이 바쁜 지역으로 꼽힌다.

금년도 벨·캐나다의 총지출은 80년도보다 1억4백만달러가 더 증가한 14억 달러였다.'

벨·캐나다는 금년 하반기에 전화기본료 25% 추가 인상을 요청 할것으로 보여, 이 안이 승인되면 토론토의 시민들은 $14.56의 기본요금을 물게된다.

벨·캐나다는 80년도의 2억7천4백만달러에서 81년도에는 2배이상인 5억5천9백만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김추기경의 인간상

이 석 현

첫 인상에 무던하고 친밀감이 감도는 모습.

철저히 서민적이고 향토색 짙은 정신계의 지도자.

세계적 인물이라는 아득높은 "추기경" 자리에 있으면서도 대하는 이들은 ,아무나 마음 편히 말을 건네고 싶어지고, 가까이 사귀고 싶어지는 분이 김수환추기경의 인간성이다.

김추기경에게는 그 어떤 가식이나 정치적 제스추어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철저하게 진지하고 겸소하고, 자연스러움 그대로의 겸손-그러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저절로 그 앞에 머리가 숙어지게 하는 자석같은 덕성!

대하는 이에게는 신분의 높낮이나 젊었거나 늙었거나를 막론하고, 어린이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마음까지 송두리 다 주고자 하는 정신자세를 엿보겠다.

그의 좌우명 Pro Vobis et pro Multis(여러분과 모든이를 위하여)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뒤를 보다 충실히 따르려는 김추기경이 지배자, 영도자가 되기보다는 실저한 협조자, 봉사자이기를 스스로 굳게 속다짐하고 있음을 알겠다.

때로 몰아치는 세파의 역스러운 어둠에 대하여 꼬집고 타매하기에 앞서 자기 가슴을 먼저 치는 온정어린 목자의 정신을 그의 교서나 담화에 짙게 풍기고 있음을 본다.

그가 밤잠도 잊고 나라와 겨레의 평화와 구령(구원)위해 남 모르는 극기와 고행의 희생을 일과처럼 거듭하고 있음을 아는 이는 알고 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본뜨는 주의 제자의 참모습이라 하겠다.

김수환 추기경-그는 지금 어둠서린 한국사회에서 갈피를 못찾고 허위대는 겨레의 등대요, 길표요, 아늑한 피난처로 민중의 신뢰와 갈증을 푸는 사명을 한몸에 짊어지고 있다.

부디 하늘의 슬기와 빛과 온정이 그 위에 날로 더하여 우리 겨레를 하늘스런 푸른 광장으로 쉽게 이끌어가게 되기를 합장한다.

이제 그분의 환갑과 토론토 방문을 곱셈으로 축하하며 시 한수를 보탠다. (검돌)

※필자는 과거 두차례 김추기경을 상사로 모신 측근으로 김추기경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다. 필자가 1956년부터 57년 대구 〈카톨릭시보〉 편집을 맡았을 때, 추기경(당시 신부, 독일유학전)이 부사장이었고, 필자가 가톨릭출판사(월간 〈가톨릭청년〉 편집장, 월간〈소년〉 주간) 57–75년 재직중 추기경이 68년 서울대교구장으로 취임, 동출판사 발행인이 됨으로써 그 슬하에서 일해 왔다.

또한 김추기경(당시 대주교)의 서울취임 직후 동양라디오의 "라디오 인터뷰"(월~토 매일아침 10분간)로 1주일간 김추기경과의 대담자로 필자가 선정된 일도 있다.

설교테잎·서적세일

종교서관, 1일~15일

토론토의 유일한 교포종교서점인 종교서관(대표 김명준)은 개업 3주년기념 특별할인판매를 5월1일~15일까지 실시한다.

전문적인 신학서적부터 체험신앙수기등 기독교관계서적들과 일반 소설류와 설교, 성가테잎, 성화및 각종 선물용품등을 취급하는 종교서관은 모든 품목에 대해 10%~20%의 할인을 한다.

저명한 부흥강사나 토론토에 왔던 부흥강사및 설교자들의 설교나 강연테잎도 판매한다.

종교서관(714 Bloor St. W. 아리랑식당옆)의 분의 전화는 535-1920

레이놀즈 "왜찍느냐" 寫眞師에 일격가해

건장한 남성미로 인기가도를 달리고있는 영화배우 버트·레이놀즈(46)가 자신의 사진을 찍으려던 프리랜서 사진작가에게 주먹질을 가한후 사진기를 빼앗아 내동댕이 쳤다.

사진작가 러셀·투리액(17)은 지난26일 벨에어에 있는 레이놀즈의 저택 문앞에서 진을 치고있다가 레이놀즈와 TV스타 로니·앤더슨(35)양이 함께 도착한 모습을 찍기위해 그의 롤스 로이스에 다가갔다가 피해를 입었다.

▲사진작가에게 폭행을 가한 버트·레이놀즈(좌)와 그의 걸프랜드 로니 앤더슨양.

〈부동산 상식〉

도넛츠업 그리스인에서 한국인으로

주매상 5천달러 이상이면 수익기대

이훈모(부동산소개업)

◇ 이훈모씨

도넛츠숍과 그로서리스토아는 영업시간은 물론 사업운영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후자가 육체적노동과 손님을 직접 상대하므로 정신적 피로도 수반하는데 반해 도넛츠숍은 상점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대부분의 일들을 밖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로서리스토아의 긴 영업시간에 지친 교민들은 도너츠숍이 24시간이라는데 질려 내용은 알아보지 않고 이 사업을 경원하는 경향도 있다.

도넛츠가게를 하는 대부분의 교민들은 아직도 일년생이라 이 생소한 사업에 빨리 익숙할려고 지나칠 정도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년생, 3년생 선배들은 이 사업을 부업정도로 생각하고 기타사업에 손대기도 하고 또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

헬퍼들이 현금을 만지니 신경을 쓰나 그들이 하루에 속이는 액수(주로 밤에)는 많아야 10불도 안될것이니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밤에는 푹 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헬퍼를 많이 쓰게 되니 인사이동이 심하고 특히 제빵기술자를 잘 부려야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포기술자가 많아지고 또 도넛츠사업의 주도권이 그리스사람으로 부터 한국사람으로 이양됨으로써 그리스 기술자들의 기를 꺾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교포경영자들이 직접 제빵을 담당, 인건비를 절약하기도 한다.

미더운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더 확보하면 그만큼 사업은 용이해지며 여가도 즐길 수 있다.

수입에 대하여 말한다면 주매상 $6,000의 경우,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월 $6,000 내지 $6,500이 될것이며, 부부가 직접 뛸때는 $8,000~$8,500을 벌게 될것이다. 물론 임대비, 모게지, 보험등이 각 가게마다 다르니 그 수입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이상을 그로서리스토아와 비교, 먹는 장사를 주로하여 관찰했다. Lease의 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것, 먹는 장사는 최소한 주매상이 $5,000이 넘어야 한다는 점, 먹는 장사의 근무시간은 그로서리스토아의 근무시간과는 질적으로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햄버거숍이나 도넛츠숍은 주매상 약 $6,000이면 그 권리금이 20만달러 내외가 될것이며, 다운페이는 8만불내지 10만불정도라고 보면된다.

이상의 소론은 일반론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허다히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자주〉 5월1일 2회분 기사중 회시앤드칩을 경영하는 교포수 10여명으로 바로 잡읍니다.

이칼럼 이훈모부동산소개소가 제공한 글로 분의 사항은 전화 225-1204로 하면 된다.

"메리부다마스"

석가탄신 카드 교환도

(서울 29일=연합)4월초파일인 부처님오신날(5월1일)을 기념하기위해 같은 불신도끼리「메리 부다마스」라고 라고 말하고 「부다마스 카드」나 「부다마스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풍습은 75년 정부가 석가탄신일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신도들은 이때부터 신년카드와 비슷한 손이나 붓으로 그린 카드를 보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갖가지 모양의 연등을 걸어놓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최근들어 약사빠른 상혼이 침투, 카드와 선물이 시장과 백화점에 나돌아 한 몫을 노리고 있다. 가장 인기있는 카드는 연꽃과 쭉 찢어진 눈(봉안)에 배가 푹 삼지진 달마의 상이 그려진 것이다.

교 민 단 신

◆홍승규(베타와즈멘즈클럽 부회장)= 모국방문차 30일 출발했다. 몇달간 모국 체류중 7월하순 서울서 열리는 와즈맨 세계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천중환(알파 와이즈멘즈클럽 회장)= 양로원건립기금 모금·골프대회·낚시대회 실시계획등 임원들과 더불어 동분서주, 본직업을 망각할 지경이다.

목자의 길

검 돌

해걸음 더듬는
나그넷 길.

연륜 구비 돌아
6순의 산말령에
멈추어 선다.

한손에 목장(牧杖)
뿔피리 불며 불며
한생을 하루같이
맞고 보낸 시공(時空).

"Provobis et Pro Multis"
(여러분과
모든이를 위하여!)

골고타 언덕
오르는 길섶에 서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일깨워

참으로 희망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을 빚어주는
밝으신 눈매,
부성(父性)이 물씬한 목자,

깊은 밤에도
영성의 별무리로
누리를 감쌌어라.

게르빔과 세라핌
미카엘을 힘입어
길표로 우뚝 선
모세의 지팡이!

순교의 터밭 가꾸는 기도가
아득한 심령에
님의 권능 심어주는
하늘뜻 받드는 사도.

목마른 겨레,
지표 잃은 젊음들
당신으로 하여
따라 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님사랑 고스란히
겨레사랑으로 잇는
2천년 흘러오는 제대위 촛불,

그 촛불을 오늘도 당겨주는
은혜로 충만한
또 하나의 "랍비"
"야곱의 사다리"를 걸어준다.

– 1982. 4. 30
집에 김추기경을 모시고.

※"Provobis et Pro Multis"는 김추기경의 표어.

지난 1 월에 **$2,000,000 을 돌파** 한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은**
$3,000,000의고지를향하여 건전한발전을거듭 하고 있읍니다.
이에 박차를가하여 정기예금(Term Deposit)의 이자율을 **파격적**
으로 **인상실시** 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기예금 Term Deposit	한인신용조합	일반은행	
		$ 5천미만	$ 5천이상
30일	14.5 %	13 %	13.5 %
90일	15.25%	13.75%	14.5 %
180일	15.5%	13.75%	14.75%
1년	15.75%	14.75%	15.25%

1. 한인신용조합은 $5,000미만도 차별없이 우대합니다.
2. $100,000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금리를 적용합니다.

영업안내 : 정기예금, 신용적금, 어린이적금, 보통예금 (Daily Interest), 일반대출, 신용대출, 적금대출
전화문의 : 533－9387, 9388
1982. 5. 1.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 BLOOR W. TORONTO M6G 1L1 ☎ : 533-9387, 9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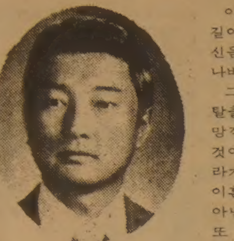
의사生活의 어두움

편집자주 : 이민자로서 겪는 고충이 큰만큼 2세들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그러나 정작 2세 자신들로서는 제대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이해가 부족한 부모의 무작정한 기대가 중압감이 되기도 한다.

성공한 이민 1세의 표본으로 내세울만한 오하이오의대 교수로 개업의사이며 수준급 한국시인인 마종기씨의 글을 〈한국일보 LA〉판에서 전재함으로써 자기 아이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고대하는 부모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66년 유학차 도미한 마씨는 작고한 아동문학가 마해송씨의 아들로 연대의대 재학시 문단에 데뷔, "조용한 개선", "두번째 겨울", 황동규, 김영태씨와의 3인시집, "평균율 I", "평균율 II"등을 출간했고 오하이오 의과대학에서 「이해의 교수」로 선정 골든·애플상을 수상했다.

시는 마종기 시인의 대표작이라기보다 이민시인의 내면이 잘 표현된 글이라는 점에서 싣는 것이며 그가 도미이후 발간한 시집 〈변경의 꽃〉에서 옮겼다.



馬鍾基
〈의사·詩人〉
오하이오 거주

내가 서울서 의과대학과 군의관 복무를 끝내고 미국에 올적에는 어느 누구처럼 큰 포부나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꿈에 그리던 땅이 미국이어서도 아니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식으로 주위 친구들이 모두 간다니 혼자서 빠지기도 무엇하고 비행기표도 주고 월급도 잘 준다니 젊을 적에 한 몇년 외국 구경도 하고 공부도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달러 50불을 달랑 받아들고 떠나온 것이 벌써 15년이 넘고 말았다.

열이 펄펄나는 어린아기를 약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는 대신 덥석 잡아 빨가벗겨서 우선 얼음이 꽉 찬 냉수 물동이에 푹 집어넣는것을 보고 오히려 내가 무식하게 놀란적이 있고 참 웬놈의 심장병은 그리도 많고 웬놈의 당뇨병은 그리도 많던지. 열이나면 해열제 주사나 줄줄 알던 내 실력에 웬놈의 피검사는 그리도 자주하던지.

날이 지나면서 차츰 영어에 귀가 좀 트이고 입이 트이면서 새삼 내 의학 실력이 무척 취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는 고 정리를 해야하고 환자의 고통과 생명의 위태한 순간의 한가운데서 전전긍긍해야하는 이 의사라는 직업이 과연 남들이 보듯이 이상적인 직업인지 아닌지 가끔 의심이 나기 시작했다.

사실 개업을 시작한 이후 그 개업이 차츰 안정이 되어가는듯 싶으면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육체적 정신적 방황을 시작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밥먹고 살게는 될것같은데 그 오랜 세월 남들이 놀적에 놀지도 못하고 시험때문에 진땀만 흘리며 지내온 청춘을 이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

또 혹시나 그런 실수가 오늘은 없을까 매일매일 일년 열두달을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집에 와서 밥상 앞에서도 걱정이 앞서고 밤잠을 자주 설치게되는 의사란 직업은 도대체 뭔가.

이 길밖에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신음속에서 내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인가.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탈출을 시작하고 찰라의 망각과 쾌락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내게 무슨 소용이냐, 이혼을 하고 딴 여자와 놀아난다. 술을 마시고 다시 또 마셔서 귀찮은것 다 잊어버리자. 또 얼마는 마약에 손을 대기시작하고 심지어 주위에서 자살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고등학교때 감명깊게 읽었던 한스·카롯사의 소설 『의사 빌거의 자살』이 현실로 절실하게 닥아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의사들의 이혼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고 의사들이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자살자가 훨씬 높은 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 되어 버렸고 직업별 수명의 분류에서도 의사는 제일 일찍 죽는 54세, 90세가 넘는 음악지휘자에 비하면 물경 40년의 수명차이가 있는 것이다.

비오는 날의 귀향 (歸鄕)

마 종 기

1

비가 오는 구나.
멀리 보이는 내 나라에서
예감의 실이 나를 감는구나.
어느 계절이면 어떠랴
젖어보자.
이제는 아무도 기다려 주지않는
귀향의 저녁 어두움.

2

기억해두자. 나를 납치한 내 나라보다 더 큰 것에 대한 미움. 기억해 두자. 그것보다 계산없이 고개숙인 내 등뼈의 체념, 안락의 의자를. 얼굴은 눈치만으로 화장되고 내시의 희미한 눈동자 같이 방향감각을 잊어도. 기억해두자. 내가 광활한 외지의 벌판에서 바람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인연없는 땅에 묻혀 드디어 메마르고 외로운 한가지의 소리가 되어도. 기억해두자. 내가 같이 시작한 꿈. 같이 자란 꿈. 내가 집어던져 버린 꿈. 다시 집어서 같이 늙어가는 꿈. 같이 돌아가는 꿈.

醫師만이 갖는 남다른苦痛15年이 준教訓
아들이 안가겠다는 醫科大 꼭보내야할지

군의관 3년을 땡땡이로 지내고 이렇게 준비없이 미국에 온 첫해의 인턴생활은 가히 지옥같은 생활이었다. 재빨거리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도 없거니와 영어말을 하는것은 더구나 언감생심이라 생명이 당장 오락가락하는 환자앞에서 진땀빼기가 일쑤였고 첫번째 당직날에는 한국서 금방 도착한 처지에 밤낮도 가려지지않은 몰골로 이 병동 저 병동을 밤새 헤매면서 그 하룻밤동안에 일곱명의 내 환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직 풀지도 못한 보따리를 다시 싸짊어지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또 4년짜리의고행, 레지던트수련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수련과정중에는 내가 외국에서 온 의사라서 미국의사면허시험을 며칠씩 쳐야했고, 또 레지던트의 끝막음에는 2년에 걸쳐 필기와 구두시험의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그중간중간에는 꿈에서까지 계속 시험때문에 진땀을 흘리면서 그 과정을 끝내었을때는 벌써 내 나이 삼십대의 중반에 도달해 있었다.

그 이후 십여년, 의과대학교수니 개업을 하면서 계속 전공의 책들과 항상 같이 살아야하고 적어도 한달에 너댓권의 저널은 읽인가.

왜 남들은 여덟시간 일하고나면 직장일 깨끗이 잊고 잘도 지내는데 아직도 밤샘 당직을 해야하고 밤낮없이 환자때문에 시달려야하는 내신세는 뭔가.

날이면 날마다 왜 피흘리며 죽어가는 환자의 운명을 지켜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오다가다 일어난 작은 실수때문에 환자가 더 고통을 당하고 병신이 되고 죽어갈적에 그리고 그런 원망을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들어야 할적에 느끼는 절망감과 외로움.

내가 오늘 의사의 좋은 점은 들지않고 어두운면만 굳이 설명하고 나서는 이유는 얼마전 어느분이 자기 아들이 학교 성적은 좋은데 악착같이 의과대학을 안 가겠다고하니 나보고 좀 가도록 충고해달라는 부탁을 들은 때문이고, 사실 둘러보면 많은 부모들이 그아이의 성격이나 특성은 둘째로 접어두고 무작정 의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을 많이보게되는 때문이다.

의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성격이 안맞고 고통을 이겨내기 힘들어 사랑하는 자식이 알콜중독자가 되고 부모의 강권이 자식의 수명을, 40년씩 줄여버리는 결과가 되지나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만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것만은 사실이니까.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㉜

고 마태오

제 4 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초보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당신의 그러한 방법을 나는 탓하지 않겠소. 그러나 거기에도 자칫하면 하느님의 은총이 무시되는율법적인 종교생활이 있게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오.

다시말하면 신앙이 없는종교만의 생활이 되기쉽다는 말이오.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점이 바로 여기에 있소.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부활을 통해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믿는 사람들 안에 그 신앙을 활성화 시켜주신 것이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종교지, 인격수양이나 도덕적생활을 통한 자아완성을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오. 그런데 태오신부도잘 알고 있는바지만, 신앙은하느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소?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이 은혜를 항상 전제하는 종교요."

"저도 그점을 철저하 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면에서 제한점을 갖고있는 우리네 인간들이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느님을 받아들이기에는 일정한 훈련과 교육기간이 있어야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마치 구약시대가 있었기에 신약시대가 있게된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이 구약의 완성이란 점에서 볼때 저는 구약시대를 하느님과 인간간의 관계를 정립한 종교시대라고 보고있으며, 신약시대는 그 종교를 완성한 신앙의 시대로 보고있읍니다. 이처럼 신앙이 있기위해서는 먼저 하느님과의접촉을 체험한 오랜 과정이 있지 않았겠읍니까? 저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한 인간의 신앙생활면에서 적용해 보고 있읍니다."

"어떠한 적용을?"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신약시대가 있기전에 오랜 구약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구약시대를 신약의신앙을 맞이하기 위한 종교적 교육과 훈련기간으로보고 있읍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 인류구원을 준비하셨다면 한인간의 신앙교육에도 그러한 방법과 과정이 있어야만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신앙만으로」보다는 하느님의 은혜인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한 도덕적 훈련과 인격수양을강조해야 되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방금 본당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바오로사도의 생애에도 이점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바오로사도께서 모범적인 바리새이파의 엄격한 율법생활을 거쳐기에 하느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적실하게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의은혜앞에 무조건 항복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은혜와신앙만으로를 소리 높여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잘 알겠소. 말하자면 하느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우신지를 체험시키기 위해 인간이 지닌 자기한계점을 경험 시킬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먼저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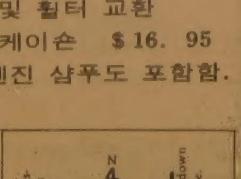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단체손님 환영, 염가로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교민에게 드리는 편지
술과 담배를 멀리 하십시요!
교민 여러분!
당신은 나의 유일한 고객입니다.
당신이 건강할때, 나는 활동적이며,
당신이 활기에 찰때 나는 건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분좋게 취한 몇잔의 술,
무심히 피워대는 몇개피의 담배.
그 위에 겹쳐지는 피로와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힘겨운 부담이 되고 있읍니다.
당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당신을 위해 지녀야할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될 때,
결국, 당신의 비즈네스도 활력을 잃고,
당신의 가정도 해치게 될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곧 나의 건강, 한개피의 담배, 한잔의 술을 들기전에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십시요.
무엇보다 좋은 약, 그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미도파 한약부를 잊지마십시요!
토론토·장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536-1692 R.245-3539

FIRST AUTO SERVICE
AUTO BODY SHOP
REPAIR
개업 3 주년기념 특별 튜납세일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자 개업 3 주년 특별기간을 설정해 아래와 같이 염가봉사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5 월 1 일 ~ 5 월말까지
일반차량 : 8 기통… $49.95
6 기통… $42.95
4 기통… $36. 95
※오일및 휠터 교환
큐브케이숀 $16. 95
물론 엔진 샴푸도 포함함.



주소 : 1521 QUEEN ST. W.
☎ : B)532-0200, R)537-5830

부동산 및 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 주택·대지·아파트
* 가게·상가·사업체
*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 준 성
DAVID CHAE

宜寧경찰서 警官5명과 짜고

狀況室長이 日誌조작

警備課長은 出動불응

政府조사반 職務유기 10명拘束방침

12명沒殺…홀로남은 어린喪主

◇주기사건당일 초상을 치르다가 재차 12명의 희생자를낸 文씨出씨의 노제(路祭)에서 어머니와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文씨의 손자가 제주(祭主)가되어 잔을 올리고있다. 【임시취재반】

【宜寧=임시취재반】경남宜寧사건의 정부합동조사반(반장 崔相曄대검찰청검사 제2부장)은 28일하오6시 사건당시 宜寧경찰서 상황실장이었던 정보과장 文鎭萬경위가 직원5명과짜고 상황일지를 조작, 경찰간부와 직원들의 비상소집경위, 그리고 신고접수시간과 출동시간등을 시간별로 경찰에 유리하게 허위기재했음을 밝혀냈다.

조사반은 이날 관계자심문에서 사건당일의 상황실근무자들이 후에문제가될까봐 맨먼저 기재했던 상황일지 2장을 찢어 버렸다는사실을 밝혀냈는데 당시 상황실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고 이들은 말을 맞춰 나중에 문제가될때 이런 일지조작사실을 비밀로할것을 약속까지 했음도 밝혀졌다는것이다.

조사반은 또 사고당시 상황실근무자6명중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지않고 있었으며 뒤늦게 비상 연락망을 통해출동명령을 내렸으나 경비과장등일부간부들과직원들이이에 응하지않았다는사실도밝혀냈다.

또 조사반은 禹範坤순경(27)이 술에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일을저지른것이며 사건당시 반상회에 간것으로 알려진 宮柳지서장 許昌淳경사는 인근 釜谷온천에갔던사실을 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

합동조사반이 이처럼 보는 것은▲禹순경이 술을 마셨지만 평소의 주량과 비교할때 정신을 잃을정도가아니며▲宮柳지서의 경비전화와 우체국 일반전화등을 차례로 파괴한것은 신고와 출동을 늦추려는 의도였으며 ▲고립된 마을을 순서대로 다니며 주민을 사살한점등 범행경로가 치밀하고▲주민들을 한꺼번에 모으기위해 「간첩이 나타났다」라고 속였고 수류탄을 옮겨 던지고 신속하게 자리를 뜨는등 범행목표가 뚜렷했던 사실등을 들고있다.

조사반은 또 禹순경의 범행동기를 조사한결과 현지주민들에게 인심을 잃었고 자신이 속해있는 경찰체제에 충격을주기위한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첫째이유가 평소의 근무지배치등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보고있다.

또 조사반은 許지서장이 사고당일 평소처럼 아무런이유없이 근무지를떠나 釜谷온천을 다녀왔으며 하오늦게 귀임,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조사반은 宜寧경찰서 崔在鎬서장등 17명의 신병을 확보, 이중 崔서장, 宮柳지서장 許昌淳경사등 10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國家서 최대한 賠償"

收拾대책위원회

宜寧사건收拾對策위원회는 28일 하오 劉彰順국무총리주재로 회의를 갖고 희생자에 대한 補償은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 부양가족등을 고려, 國家賠償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상키로 하는등 유가족과 부상자치료에 대한 10가지의 收拾策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사건현지에다녀온 金俊成부총리와 千命基보사장관으로 부터 현지상황보고를 받고 이같은 대책을 협의, 결정했다고 黃善必총리공보비서관이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부상자 치료는 완치될때까지 국가에서 全額부담하고 遺族의 生計에 대해서는 위협이 없도록 조속한 보장책을 수립하며 유가족자녀의 취업을 알선하고 학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책회의에서는 遺家族中 徵集해당자는 징집을 당분간연기하고 사고지역예비군의 훈련을 당분간보류하며 지방세의 일부를 減免해주기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에서 정부가 주선하는 합동慰靈祭를 열고 사망한공무원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追敍, 적절한 조치를취하기로했다. 희생자의 장례식은 사망자 1인당 공무원을비롯, 5명이 희합처 뒷바라지를해 도와주도록했다.

內務장관 問責경질

內務 盧泰愚·체육 李源京·서울市長 金聖培씨

◇盧泰愚내무장관

◇李源京체육장관

◇金聖培서울시장

全斗煥대통령은 28일 경남宜寧 경찰관총기亂射사건과 서울峴底洞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徐廷和내무부장관과 朴英秀서울시장을 각각引責更迭, 내무장관후임에 盧泰愚체육부장관을, 서울시장후임에는 金聖培慶北지사를 각각 임명 발령했다.

盧장관의 내무부장관 轉任에 따른 체육부장관후임에 李源京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全대통령은 또 宜寧총기사건에 책임을 지고 辭表를낸 劉彰順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사표를 반려했다고 李鍾熙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李대변인은 『이번의 각료경질로 宜寧사건에대한 引責인사는일단락된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석중인 慶北지사 후임은 신임 盧내무부장관의 건의를받아 곧임명될것으로알려졌다.

李대변인은 이날 각료引責 경질내용을 발표하면서 徐前내무부장관과 朴前서울시장은 27일자로 劉총리에게 사표를 냈으며 全대통령은 28일 낮 劉총리 자신의사표와 徐前내무, 朴前서울시장의 사표를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날 각료引責 경질이 있은뒤 『宜寧총기사건은 대단히 불행한일로서 표현할 수없는 마음 아픈 일』이라고 개탄하면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평상시근무태만때문』이라고 말한것으로 李대변인은 밝혔다.

全대통령은 특히 『사건이발생된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헛점을 드러낸것들은 모두 『책상위의 행정』에서 빚어진 본보기라고 개탄하고 『이번기회에 모든 공직자는 책임을통감하고 책임행정을 철저히 실천하는 대오각성이 있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낮 劉총리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며 각료들의 引責경질내용을 통보한것으로 알려졌다.

신임閣僚들의 略歷은 다음과 같다.

◇盧泰愚내무장관=▲大邱출신·50세 ▲陸士卒(11期) ▲사단장 ▲수도경비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 ▲육군대장 ▲政務제2장관 ▲체육부장관

◇李源京체육부장관=▲慶北門城출신·60세 ▲서울大商大卒 ▲외무부亞交·儀典국장 ▲외무차관 ▲合同通信사장 ▲대한체육회부회장겸KOC부위원장 ▲문공장관 ▲韓山産業회장 ▲立法의원 ▲올림픽조직위사무총장

◇金聖培시장=▲江原溟州출신·55세 ▲江陵商高卒 ▲英버밍검대서硏修 ▲江原道내무국장·기획관리실장 ▲서울시내무·재무국장 ▲同기획관리관 ▲同제2·1부시장 ▲江原知事 ▲慶北知事

禹의 爆死현장서 수류탄 1發수거

한편 경찰은 28일하오1시께 사건발생이후 주민들의 신고로 禹순경이 자폭했던 坪村里 徐仁洙씨집에서 안전핀이뽑힌 수류탄 1발을 수거했다.

56명死亡·35명負傷

【宜寧=임시취재반】宜寧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모두 56명(남22, 여34)이며 부상자는 35명으로 28일 최종 공식확인됐다.

마을별 사망자를 보면 雲溪里에서 21명, 坪村里서17명, 土谷里서10명, 기타지역에서 온 발문객중에서 6명이 각각 숨졌으며 이들 희생자들은 60대가 2명, 50대가12, 40대가7, 10대가14, 30대가5, 20대가 9명이었으며 이밖에 10살이하의 어린이가 6명, 7순의 할머니가 한명이었다.

사망자가운데는 대학생과 고교생이 각1명, 중학생2, 국교생이 5명이포함됐었다. 부상자 35명은 馬山고려병원에 19명, 晋州제일병원 15명, 釜山大병원에 1명이 입원, 치료중이다.

이번사건의 사상자 집계가 엇갈린것은 사건발생지역이 4곳이며 중상자들이 馬山과 晋州의 병원등에 실려가 일부 명단이 중복집계되었던때문이었다.

社會漫評

그래서 이번事件은 끝난겁니까…

아르헨 「黃色경계」

脫營兵은射殺·病棟비워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워싱턴28日外電=綜合】아르헨티나는 28일 전쟁직전조치인 「황색경계」태세를 선포, 임전태세를 완료했다고 선언하고 영국이 24~48시간 이내에 포클랜드군도에 해상및 공중공격을 감행해올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영국은 28일하오 포클랜드수역에 들어가게된 기동함대의 동향에 관해 일체 보도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우려를 고조시키고있다.

아르헨티나는 협상에 의한 포클랜드위기 해결전망이 거의 무산됨에따라 27일 영국과의 일전에 대비,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시키고 탈영병들은 즉각 총살시키겠다고 위협하는한편, 포클랜드도로 육·해·공군 보급품을 공수하는 중기지인 2개전략도시에 주재하고있는 모든외국기자들에게 48시간이내에 이곳을 떠나라는 철수명령을 내려사태의심각성을반영했다.

內閣 총사퇴요구

野, 安保長官 집중추궁키로

民正, 民韓, 국민당등 주요정당들은 28일 각각 당직자회의등을 열고 宜寧경찰관총기亂射사건의 사후대책및 30일 소집되는 국회內務委대책등을 협의했다.

이회의에서 특히 民韓黨과 국민당은 이번사건과관련 內閣의 引責사퇴와 임시국회소집을 주장하기도 했다.

民正黨은이날당직자회의에서 이번사건과 관련한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한뒤 오는 30일 국회내무위에서 ▲경찰관 자질향상▲경찰과 예비군동원체제 확립▲총기관리문제▲피해자의보상과 구호문제등을 따지기로 했다.

民韓黨은 29일상오10시 현지조사단을 참석시킨 확대간부회의를, 30일에는 긴급당무회의를 각각열어 對策을 협의한다. 金鍾圭정책의장은 『아직 黨論은 정해지지않았지만 이번사건은 내무장관뿐만아니라 내각전체가 책임감을 느껴야할것』이라고 말하고 『이번사건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전체, 특히 안보관련장관들이 책임을느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당은 29일 당무회의에서 현지조사반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인책범위, 치안대책등에대한 黨論을 확정할 계획이다.

地平線

얼마전에 인구밀도와 출생률이 높기로 유명한 미국의 自治領 푸에르토리코에서 도로교통안전의날을 정했었다. 정부, 경찰, 시민단체, 신문, 종교단체 모두가 한덩어리로 되어 캠페인을 벌였다. 하나 교통사고발생건수는 줄지않았다. 이럴수가 없을텐데 하면서 모두 어리둥절했다. ▼교통정리에 나선 당국이나 시민이나 예상밖의 일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결론은 『사회규모와 자동차의 수가 어느 限界에 이르면 교통사고는 난폭 운전이 없어도 줄지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51번째州로 昇格하느냐 여부로 贊否가 엇갈리고있는 푸에르토리코의 교통문제는 그섬에만 국한된 얘기가아니다. 문제는 자동차 수=人口에있다. 자동차가 아무리 減速운전을해도 모두가 減速하면 교통사고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人口臨界論은 犯罪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統計學者들의 말로는 도시의 犯罪發生件數를 대충 豫測까지 할수 있다는 것이다. 스톨·이주유티쏠을 주장하는 미국의 社會經濟學者 레오폴드·쿨博士는 가령 앞으로 30일동안에 시카고에서 강도 1천件, 절도 5백件, 부녀 폭행 30件, 살인15件이 일어나리라고 예측하면 그것이 거의 맞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곳시민이 딴도시시민보다 흉악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것이다. 설사 범인 1천5백명만으로 사회를만들어도 범죄는 크게 줄것이 틀림없고, 반대로 종교인만 사는 사회일지라도 범죄건수는 인구에 비례할뿐이란 견해다. ▼사회 인구가 어느 臨界규모에 이르면 어떤 행정조치, 캠페인, 교육방침을 써도 범죄건수를 줄이기가 극히 어려운 모양이다. 한데 어제 外信을 보면 한국은 금세기말까지 20년동안에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17번째로 높은 나라로 될 것이라고 미국정부의 한 보고서가 전망했다한다. 인도·중공·브라질의 인구증가율이 제일높고 한국은출산율에서 34%의 감소를 보여 근래 그 성장률이 크게鈍化되고 있기는하나 17번째는 될것이라한다. ▼올해들어우리나라 人口는 3천9백만명, 그증가율은 1.7%다. 52초에 1명꼴로 출산, 해마다 大田人口만한 60萬이 늘어난다. 서울의 現人口는 8백67만명, 88올림픽 2년앞인 86년엔 1천만명을 넘어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말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이다. 푸에르토리코나 시카고의 얘기는 남의얘기가 아니다. 人口증가는 미지근한 口號만으론 못막는다는 것을 알고 남제한다. 宜寧사건 비슷한 범의별 사건이 날수도 있다. 臨界에 이른 人口增加抑制에 妙方은 과연 없는 것일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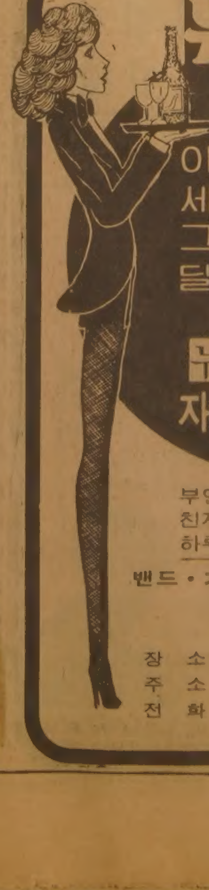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500 아스킹 $65,000 렌트 $500(Mon) 리스 : 11½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샵

주매상 $9,2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샵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샵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직원채용

새로개점할 저희 은행 블루아 지점 627 Bloor St. W. 에서 일할 직원 약간명을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이력서와 사진을 우송해 주십시요.

〈모집구분〉

1. 슈퍼바이저급 1명
2. Teller 여자(약간명)
3. 남자직원(일반잡무) 1명 ⊙Salary

캐나다외환은행

주소 :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 364-2890

機種엔 신경쓸 필요없다

때 해외나들이를 해보았다는 사람들도 타고갈 여객기의 기종에 은근히 신경을쓴다. 사고가 빈번했던 기종이나 최근에 사고경력이 있는 기종은 꺼리고 작은비행기보다는 큰 기종을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점보기(보잉747)를 가장 선호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우려때문에 기종에 신경을쓸 필요는 없다. 비행기라는게 엄격한 안전기준에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에 기체의 결함보다는 정비나 조종기술이 「안전」을 좌우하는것이다. 특히 엔진이 많다고 안전한줄로 생각하는것도 틀린생각이다.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그것이안전하다고믿는 심리적인 영향을 다소 주는것에 지나지않는다. 항공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에와서 비행기의 추세는 제트화가특징. 특히 국제선을 뛰는 비행기는 거의 제트기라해도 과언이아니다.

기종의 특징을 구별짓는 요인중 가장 중요한것이 엔진이 달린 위치이다. 현대 제트기의 엔진은 2~4개이다. 보잉707, 747, DC8은 4개가 모두 양쪽날개에 두개씩 달렸다. 한편 DC10 DC9은 양쪽날개에 하나씩 붙었고 수직꼬리에 1개가 부착된게 특징이다. 또 보잉727은 꼬리부분 동체에 2개 수직꼬리에 1개가 부착됐다. 엔진의 위치에 따라 비행기 성능도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승객들에게는어느쪽이 기내소음이 가장 적느냐도 중요하다. 즉 제트소음은 날개뒷부분 좌석이 가장 심하다. 또 각종환기장치도뒤로 빠지게 돼있어 여객기의 좌석은 앞자리가 좋다는 결론이 나오기도한다. 그러나 프로펠러기는 날개부분의 진동이 가장 심해 좋은 좌석이라는게 앞부분과뒷좌석으로 갈라져 있는것도 참고할만하다.

初行者를위한 가이드 해외여행

보잉707 利用度 제일높아
젯트機騷音 뒷 부분 가장심해
크기 競爭서 經濟性 경쟁으로
整備·조종技術이 「安全」좌우

전세계 하늘에는 매일 약 4만대의 여객기가 날고 있는데 이들 비행기는 기종으로 보면 약30여종, 항공기제작회사수로 보면 10여개회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외여행에서 타게 되는가좋은 그중에서도 약 15개 정도 밖에 안된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보잉시리즈. 점보인 보잉747은 너무잘알려진 기종이고 보잉707 727도 KAL이 보유하고 있어 낯익은 편이다.

보잉707은 전세계에 9백62대가 날고있고 날렵한 몸체에 4개의 엔진을 달고 있어보기에도 안전해 보인다. 백악관의 전용기로 쓰이는 것을 보면이 비행기는 안전성과 장거리비행기로서 탁월성이 인정됐다는 평이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을 중단하고있다.

여객기로서 가장 많이 된 것은 단거리용인 보잉727. 처음에는 1백20석짜리가 나왔으나 요즘은 대형화돼 1백70석짜리까지 생산된다.

KAL이국내선용으로쓰고있고 미국국내에 여행하면 인근도시간여행에서 자주 타게 된다.

더글러스社가 제작한 DC 시리즈는 DC10 (3백석내외) DC 8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DC9은 국내에서는 볼수 없고 후진국 외국항공사에서 많이 운항하고 있을 따름이다. KAL은 DC10을 유럽·한일노선에 취항시키고 있으나 DC8은 모두 팔아버리고 지금은 없다. DC 8은 보잉시리즈로 치면 707기와 같아 엔진이 4개로 우수한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항공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2월 東京灣에 추락사고를일으킨 것도 이 기종. 프랑스에어버스社가 만든 A 300도 중거리여객기로 유럽에서 많이 취항하며 KAL도 현재 日·東南亞노선에 취항시키고 있는데 특징은 엔진이 2개인 점. 이 외에도 록히드社가 제작한 트라이스타가 있는데 DC 10과 비슷한 모양이나 약간 작다. 金浦에는 CPA항공이 트라이스타機로 취항하고 있고 주로 미국항공사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가 명예를걸고 英國과 합작한 초음속여객기 콩코드機도 10대가 대서양노선에 뜨고 있으나 소음과 연료소모등의 문제로 여객기로서는 뿌리를 내리지못했고 10대만 생산하고 현재는 중단상태다. 화란에서만든 포커27(프로펠러) F28(제트)도 있는데 외국여행중 탈기회는 적다. F27은 국내에도 1대가있어 東草·麗水등지를 운항하고 있다.

◇부시美부통령이 타고온 미공군 2호機인 보잉707㊤과 英·佛합작으로 만든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機㊦. 두 기종모두 지금은 생산을 중단하고있다.

상업민간항공기는 독일에서 8명을 태우고 6천7백50m의 고공을 날은 안네리제機가 효시였으나 지난52년에 나온 코메트기(36석)가 제트여객기 시대의 막을 열었다.

지금까지 엔진을 많이 부착했던 비행기로는 2차대전때독일이 제작한 도니어DO-X로 엔진수가 무려12개. 그러나 안전도는 고사하고 불편해 얼마동안밖에 사용되지 못했다.

세계의 비행기종은 점보를 정점으로 다시 소형화해가는추세. 보잉사가 제작중인 보잉757 및 767은 엔진을 2개 부착하고 좌석수 2백50석정도로 경제성을 중시했던 에어버스를 모방하고 있는 실정. 신예 보잉757은 이미 미국내에 취항중이다.

많은 항공전문가들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고래모양을한 비행선이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영국이 개발한단계에 있는 AD500은세계에서가장값싼「마술융단」이란 별명까지 얻어 놓고 있다.

세계의 여객기는 이제 단순간 속도와 크기경쟁을 유보하고 경제성경쟁에 치중하고있는 추세다. 【李鐘기자】

요르단江 西岸 PLO自治협상 "한치도 양보 못한다"

"定着村공격땐 레바논侵攻"이
"建國안될때엔 猶太人 水葬"팔

국제焦点

지난25일에 단행된 시나이반도철수후의 중동평화는 요르단강西岸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자치협상이 가늠한다.

팔레스타인 자치문제는 시나이철수협상보다도 더 험난한 외교절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완벽하게 매듭지어지기 전에는 캠프데이비드협정이 의도한는 중동평화는 없다.

이스라엘 이집트 PLO등의 당사자들 모두가 이문제의 조속한 결말을 원하고 있는데도 서로의 주장이 달라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문제는 이스라엘의 시나이 철수와 함께 79년에맺은 이집트·이스라엘평화조약의 주요골자다.

이집트는 팔레스타인국가창설을 금주의 목표로하고 있는데 반해 이스라엘은 요르단西岸과 가자지구가 자국에 귀속된 영토라는 원칙밑에서 이 곳에 더 많은 유태인을 정착시키고 아랍인들에게는단순히상징적행정권을부여코자한다.

지난 25일 시나이를 이집트에 반납하고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문제협상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는 이결의를 뒷받침하듯 요르단강西岸에 6개정착촌을 새로짓고 골란고원의 유태인거류민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발표했다.

팔레스타인자치문제가본격 거론될 것을 내다보고 미리 이스라엘의 결의가 [illegible]다는 것을 관련국가들에 과시해본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PLO가 이스라엘정착촌을 공격할 경우 레바논을 침공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베긴수상은 『레바논을 침공하게되면 영토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PLO조직을 쓸어버릴 것』임을 덧붙여 놓고있다.

요르단江서안에는 63개, 골란공원에는 31개의 유태인정착촌이 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5년이내에 요르단강서안의 정착민을 현재의 4배인 10만명으로 늘릴방침으로 알려지고있다.

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이 지역에는 85만명의 팔레스타인난민이 살고있다.

이집트선「팔國創設」을 주장
「완벽매듭」없어 平和먹구름

팔레스타인문제에 관한 PLO의 자세도 이스라엘 못지 않게 강경하다. 팔레스타인 國家창설이 아니면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유태인을 지중해에 수장시키겠다고 언젠가 공언했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사이에 팔레스타인자치협상이 매듭지어진다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된다.

아랍인들은 캠프데이비드협정에 의거한 자치협상이 이스라엘의 지배를합리화시키는허울로보고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부분 자치안에 공감을 하면서도 PLO의 압력에 입을 다물고 있다고 믿고 PLO의 지도층을 온건한 人物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국가 창설을 목표로 삼고있는 이집트는 우선 이스라엘정착촌의 철거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있다.

이처럼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대립으로 미국의 중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3월초 카이로에서 열렸던 자치회담의 다음 개최지를 놓고서도 실랑이가벌어지고있다. 이집트는 헤이그장관이 제안한 워싱턴을 찬성하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고집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한가지도 양보못하겠다는 시위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자치협상의 조속타결을 가장 애타게 희망하는쪽도 이스라엘이다.

베긴수상은 이집트와 협상을 타결짓고 미국이 들어서면 이집트가 자치안을 양보하는 대신이 두나라가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른 대안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베긴이 시나이를 철수하기전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에게 자치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제안을 찬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한것은 이런 사태를 막아보기 위함이었다. 베긴은 이집트가 이 점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시나이철군을 연기하겠다고 내비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가장큰 근심은 자치협상이결렬되면 이집트가 평화조약을 외면하고 시나이반도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압력의 근거지로 삼을지도 모른다는점이다. 사면에적을두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일것이다.

팔레스타인자치협상은어느쪽으로 보나 生存이 걸린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협상의 成敗는 곧 전쟁과 평화의 교차점이 될수있다. 모든 당사국과 개국 미국도 이문제가 중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중동사태는 다시 걷잡기어려운 혼란에 빠진다는 점을 잘알고있다. 【崔相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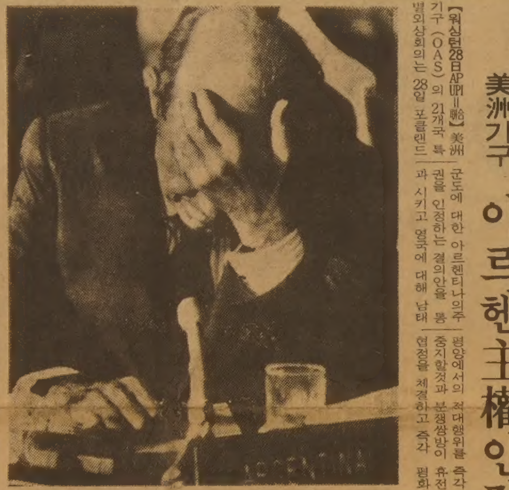
◇차마 볼수가 없어… 시나이 야미트 정착촌 철거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돌로 유태인을 끌어 내는 것을 차마 볼수가 없어 눈을 가리고만 유태여인. 【AP】

英·아르헨에 休戰촉구
美洲기구 아르헨主權인정 결의안 채택

【워싱턴28日AP UPI=聯合】美洲기구(OAS)의 21개국 특별외상회의는 28일 포클랜드군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주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키고 영국에 대해 남태평양에서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할것과 분쟁쌍방이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즉각 평화협상을 재개하도록 촉구했다.

OAS 특별외상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리에 진행된 이날회의에서 이같은 아르헨티나 지지결의안을 미국 콜럼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등 4개국이 기권한 가운데17대0으로 채택했다.

브라질과 페루가제의한 9개국 공동결의안은 분쟁을벌이고 있는 두나라에 대해 사태를 악화시킬지모를 행동을 자제하도록 호소하고 평화협상에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을 참여시킬것을 촉구하고있다.



◇고뇌에찬 아르헨外相 아르헨티나의 코스타·멘데스외상이 28일 워싱턴에서 소집된 美洲機構(OAS) 회의석상에서 손을 이마에대고 고뇌에찬 모습을 보이고있다. 【워싱턴27日AP聯=聯合】

蘇、아르헨支持약속
포群島 英식민지 復歸不容

【모스크바27日AP·UPI=聯合】소련은 아르헨티나에 포클랜드(말비나스)군도가 영국식민지로 복귀하는 것을 『不容』할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위해『조치』를 취할것임을 약속했다고 모스크바의한 아르헨티나 외교소식통이 27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다. 관측통들은 크렘린이 포클랜드사태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전폭지지하기로 결정한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소련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병참 또는 군사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시사는 아직까지 나오고있지 않은데 외교관들은 소련이 ▲헤이그 美국무장관의 왕복중재외교가 완결되지않았고 ▲東西대화분위기가 손상될 우려가있으며 ▲아르헨티나가 親서방노선을 걷고있는 점등을 이유로 이번사태와 관련, 아직까지 표면에 나서기를 주저하고있다고 전했다.

포群島 返還때엔 英"兵力3千駐屯"

【런던27日AP=聯合】영국정부는 포클랜드군도가 무력으로 탈환되거나 외교협상으로 반환될경우 그곳에 3천명의 병력을 주둔시킬 계획이며 그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주말에 이미 군용천막 2천조를 징발된 한화물선편으로 현지로 보냈다고 영국의 국내통신인 프레스·어소시에이션(PA)이 27일 보도했다.

엘살바도르政府軍 叛軍에 총공격
4千兵力투입 戰鬪機동원

【산살바도르28日UPI=聯合】엘살바도르는 27일 전투기와헬리콥터의 지원을 받는 4천명의 군대를 동원, 5월1일의 노동절공세를 준비중인반군들에 대한 금년 최대규모의 공격을 개시했다.

軍소식통들은 2천~4천명의 엘살바도르군대가 게릴라들의 소탕을 위해 이날 부모라잔省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나라의 제헌의회는 오는83~84년 새선거가 실시될때까지 이나라를통치할 임시 대통령의 지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로베르토·도비손제헌회의의장과 다른지도자들이 새 대통령선출을 위한 의회의를 28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5월초 中共訪問 부시 美부통령

【워싱턴·싱가포르27日AP·AFP=聯合】조지·부시 미국부통령은 현재의 5개아시아태평양국가 순방을 끝마치는대로 오는5월초 중공당국의초청으로 北京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27일 발표했다.

메아리

混血兒

6·25가 지난지도 30년―. 한데 아직 이동족상잔의 참극은 긴 꼬리를 여러모로 끌고있다. 그가운데 하나가 우리사회에서 설자리가 그리 마땅치않은 혼혈아의 문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지역에 산재해있는「아메라시안」, 즉 미국인과 아시아인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는 약 8만명내지 10만명으로 추산되고있다. 그중 6·25이래 우리국내에서 태어난 혼혈아만도 6천명으로 헤아려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치 『안데르센의 동화속에 등장하는미운 오리새끼』처럼, 피부와 머리카락, 살갗등이 우리와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괄시속에서 자라고 또 소외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어느 혼혈아는 『나는 동네어린이들에게 「참원」이나 다름 없었어요. 원숭이 놀리듯 만져보고 건드리고하다가 내가 울음을터뜨리면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하며 어린때를 회상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해외입양 또는 이민을 원하고 있지만 13세이상의 연장혼혈아들은 외국에서 입양마저잘 받지않아 오직 연고자 초청에 의한 이민을 기다려야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풀기위해서인지 지난26일 미군과 한국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에게 미국이민에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마침내 미국의회에서 발의 되었다고한다.

이법안의 제안자인『델튼』의원은『한국과 미국문화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양국 모두로부터 거절당한채 비참하고 곤궁한 삶을 살고있다』면서 미국은 이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과연 이들에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미국만의것일까? 그들은 우리와 핏줄을 나누었으며 같은 국적을지녔고 성인남아인경우에는 병역의무마저지는 형제요 자매이다. 말하자면 정부든, 사회든 외면할 대상이 아닌 인간가족이다.

그 아니라도 60만을 헤아리는 재일교포가 민족적 차별대우를 받고있고 또 미국의 흑백인종차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같의 혼혈아문제에는 무위무책하다면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과도 어긋나는일일성싶다.

미국의회에 상정된 법안의 향배보다도 혼혈아를위한 우리의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책이 더 아쉽다.

柳民韓총재、스즈끼와會談

【東京28日=宋孝彬특파원】방일중인 柳致松民韓黨총재는 28일상오 스즈끼(鈴木)日本수상을 예방하고 韓日간의 經協문제등에관해 약25분간 의견을 교환했다.

柳총재는 이자리에서 『韓日간의 經協문제는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명분에 구애되지말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즈끼수상은 이에대해 『日韓은 끊을수없는 관계에 있다고 전제, 『한국이 80년대이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국가건설을 달성하는것은 韓日관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므로 일본이할수있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또 기회있을때마다 국회를통해 韓日經協의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쿠라우찌(櫻內)外相이 訪韓하게되면 經協분야에 더욱 폭넓은 분야에 걸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요담에는 崔慶祿駐日대사와 民韓黨의 林鍾基총무、孫世一의원이 배석했다.

한국일보 구독신청 533·2361

海外토픽

蘇서 親나치示威
★고교생들, 히틀러生日에

소련의 고교생들이 히틀러의 생일인 지난 20일 모스크바중심가 푸시킨광장에서 卍자 완장을 두르고 친나치시위를 벌였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소련의 무엇이든 무가치한 것이라면 치부하는 소련젊은이들간에 최근 2년사이에 부쩍 늘어난 나치운동의 한 표적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히틀러가 소련최대의 적으로 간주되고있음에도 그간 파시스트 혹은 친나치그룹이 소련내에 존재하고 있는것이 알려져왔는데 고학년학생들간에는 소위「나치초키」라는 이들의 그룹도 있다는것. 【모스크바=特】

★이란女人들 回敎革命이후 건물안팎서 變裝

테헤란거리에서는 요즈음 양장차림의 여성들이 큰 건물에 들어가기에앞서 머리를 스카프로 두르고 레인코트를 걸치는등 부산한 변장(?)을 갖추나 건물밖으로 나와서는 다시 양장차림으로 돌아가는 이색적인 풍경이 곳곳에서 목격되고있다.

여성들은 회교혁명이후 회교의 여성의상인 차도르를 걸치거나 스카프로 머리를 가리는식의 검소한 복장을 갖출것을 종용받아 왔는데 최근 당국이 택시나 버스운전사들에게 머리를 드러내놓은 양장차림의 여성승객에게는 승차를 거부할것을 촉구하는 등 회교의상착용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어 서양풍의상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이 이같이 곤경을 치르고 있다고. 【테헤란=AP】

★부인에 生活費 하루77원 노랭이 백만장자

타이의 한 지독한 구두쇠 백만장자가 결혼후 지금까지 18년간을 부인에게 하루 고작 2·50바트(약 77원)만의 생활비를 지급, 생활고에 견디다못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수리포른·탐수리야(46)란 부인은 제약회사사장인 남편이 주는 돈으로는 9명의 아이들과함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지경인데다가 지난1년간은 부부관계도 전혀 않았다고 소송이유를밝히면서 남편의 재산 2천7백69만바트(약8억4천만원) 가운데절반은 위자료로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콕=AP】

外信안테나

◆蘇, 前次官에 총살형 =70년대 소련관리들에의한 철갑상어알젓 부정수출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 前水産省차관 블라디미르·리토프가 최근 총살형을 집행받았다고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가 27일 보도했다. 【모스크바=UPI】

◆日朝友好聯 北傀대표단 招請 =일본의 日朝우호촉진의원연맹(회장 久野忠治)은 금년중 대규모 북괴대표단을 일본에 초청, 어업과학 공노선문제등을 협의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이에따라 日朝의원연맹은 곧 일본정부에 대해 북괴대표단 입국을 허가해주도록요구할방침이다. 【東京=聯合】

◆西獨, 소폭적인改閣단행 =헬무트·슈미트서독수상은 떨어지고 있는 社民黨연정의 인기를 만회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7일 취임후 처음으로 소폭적인 개각을 단행, 만프레트·란슈타인수상실서 국무상을 재무상에 임명하는등 4명의 각료를 경질했다.

이번 개각에는 슈미트수상의 측근3명이 포함돼있다. 【본=聯合】

巨龜莊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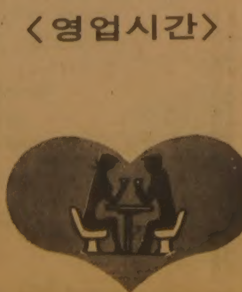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홍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간 : 4월27일(화)부터 매일공연
(월요일만제외)
오후9시— 새벽1시

〈영업시간〉 월·화·수: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制服에 가리워진「危險」 第2의 禹巡警 없을까

시골은 그나마 人力부족…通信장비 補強만이라도

◇禹순경이 근무한 宮柳지서。하루종일 폭행사건하나 없는때가 많은곳에서 일어나 돌발사태에 전혀 속수무책이었다。

警察의 細胞 支·派出所 실태를 보면

순경禹範坤(27)이 저지른 宜寧사건은 경찰은 물론 정부를 유구무언으로 만들었다。어처구니 없는 이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이 저질렀고 국민의 총기소지가 엄격히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관에의해 이루어진것이라는데서 희생이 엄청났을뿐아니라 문제점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는것이다. 더우기 범인이 비록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었다하더라도 잠시간 동안 난동을부리는것을 제지하지 못한데대한 제도적결함이나 일선 치안기관의 근무자세의 미비점등이 심각하게 제기됐다。

이번사건이 전혀뜻밖의 돌발적인 사태였다는점을 감안하더라도 禹순경의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평상시 아무도 상상할수 없었던것만은 아니었다는점에서 경찰자체적으로 혹독한 자가비판이 앞서야할 것이다.

우선 크게 구별해서 이 사건의 문제점은 ▲경찰관의 자질과 ▲경찰의 말단신경세포인 지서의 운영상 결함, 즉 유사시의 출동태세와 통신망▲그리고 무기관리를 꼽을수있다.

현지에 다녀온 치안본부고위층의 분석은 禹순경의 만행은 평소 경찰자체의 문제가 곪아터졌다거나 대표적인 비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찰관의 만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인간」의 범행이라는것이고 이는 납득이가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같은 인간이 법집행의 상징인 경찰관제복을 입고있을수있었다는점 자체는 엄청난 문제가 아닐수없다.

보통 고졸정도의 학력과 건강한 신체조건과 사상등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경찰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당한 기준에서 뽑는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발더나아가 최근의말단 경찰관자질을 분석한다면 그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인간인가 하는데 회의를 갖게한다. 박봉과 격무는 경찰의 대명사처럼 들린다. 각시도경찰국에서 선발하는 순경은 직업으로서 인기가없다. 심한경우 몇번씩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 모집정원이 모자랄경우 버젓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는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이것은 내면적인 정신자세나 성격등 자질은 고사하고 외관상의 평가기준인 학력에서도 자질이모자라는 경찰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머릿수 채우기에 급한 경찰은 게다가 이렇게 선발한 경찰관을 직책수행에 맞는 인간으로 교육시키고 개발시키는 일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그런 일에 신경을 쓸 문제의식도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5~6개월의 단기 교육만으로

「事故엔 左遷」이 虛點확대 「人間」보다「겉보기」로 채용

民防衛·豫備軍 동원체제도 再點檢돼야

뉴스診斷 社會部 裵瑛哲기자

기본적인 근무요령만 가르친뒤바로 제복을 입고 나오는 말단경찰관은 그뒤 수시로 교육을 받지만 개인의 정신상태나 성격은 유니폼속에 가려져 인사에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

문제가있다고 판단될경우 재교육이나 적성의 정밀검사를 받지못하고 좌천등의방법으로만처리, 문제를 더욱크게 만들기도한다. 禹순경도 바로 정신적자질이 부적격한 사람이었다. 외관상의 신체조건만으로 특수경비단에 배속되기도했지만 곧 포악한 성격과 주벽때문에쫓겨 좌천됐던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소리지만 이사실이 밝혀지자 일부 경찰관들은 그런결함이 발견됐다면 그당시에 경찰을떠나게하든지 적절한 인간재교육이라도 시켰어야옳았다고 비판하고있다. 현재와 같은 인력관리제도로서는 또다른 禹순경이 나타나지않으리라는 보장이없다고 탄식하는 소리 또한 높다.

박봉과 격무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수 없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주저앉아있을수만은 없다면 이제는 국가적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워야할 때가됐다.

기본적 자질과함께 개선돼야할 것은 말단의 인사제도와 인력관리. 현재 전국에는 파출소가 1천6백29개소, 지서가 1천4백88개소로 모두 3천1백17개소의말단신경세포가 퍼져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파출소 1만4천7백12명에 지서 8천1백81명을 합쳐 2만2천8백53명으로 전체 6만1천여명의 30%가 조금 넘는다.

정보·수사등의기능을빼면 경찰업무의 대부분을 이들 30%의 인원이 모두 해내고있는 셈이지만 그들은 업무량이 많고 치안수요에대한 업무중요성에 비추어 합당한 대접을 받고있다고는 볼수없다。

현실적으로 오지벽촌의 지서에 근무하고싶어하는 경찰관이 없다면 그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순환보직제나 보상은 크게 신경을 써야할 문제지만 1급부서나 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쫓겨가는 곳으로 인식돼있고 지서근무자는 항상 지서로나 전전한다는 불만이 높은 형편에서는 기대할수없는 일이기도하다。

제도적으로 구별돼있는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각경찰서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된다. 인구비례, 위치등에따라 매겨지는 등급은 바꾸어말하면 근무하는 경찰관의 자질과 직결된다. 뿐만아니라 각경찰서에 속한 지서나 파출소도 현실적으로 ABC 3등급으로 구분된다.

인구나 치안수요에따라 구분돼 근무인력도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여명까지 일정치않다.

禹순경이 속한 宜寧경찰서宮柳지서는 말하자면 하급경찰서의 하급지서로 꼽힌다. 이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현실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갖고있다고 볼수없는만큼 제도적인 관심 또한 높은것일 수없다. 이러한 기준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지않는 평상시에 정한것이기때문에 이번같은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질경우 이에 대치할 능력이 없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생각해야할때가됐다. 경찰서가 직접장악할수있는 도시의파출소와 달리 본서와의 거리가 멀어 직접통제가 어려운 지서는 통상 치안수요가 적어 관심이없는곳이돼있지만 바로 그때문에 돌발사태가 벌어지면 대응능력이없는만큼 인력이나 통제장치에 큰 변혁이 이루어져야된다는것이다.

禹순경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宮柳지서의 경비전화를 끊어놓았다。만행이 계속되는 동안 본서와 연락할길이 막혀버린 것이다。지서에는 경비전화외에도 무전기가 지급돼있지만 성능이 빈약해 50~1백리까지 떨어진 본서와 교신할 장비는 되지못한다。

범인이 주민들의 의심을 살 이유가 하나도없는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희생을 신속히 막지못했다고 분석하지만 만일 무장공비나 다른 범인이 경비전화를 끊었다해도 사태는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일이다。

결국 치안수요가 적어 인력 또한 적은곳이라면 통신장비는 역으로 더 충분하게 갖추어야한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말단지서의 인력과 통신체제외에도 위급한 상황이 오지에서 터졌을경우 본서나 유관부문의 출동수습대책에도 미비점이 큰것으로 노출됐다。

문제는 난동을 처음부터 막지못한 동료지서직원의 직무유기와 무기관리체제의 헛점때문에 커졌다。그러나 범행이 장시간 계속되는 사태를 막지못한것은 가장 큰문제가 아닐수없다。

심야에 총성이 계속되는데도 인근지서는 무얼했으며 뒤늦게 출동한 본서의 초동타격대는 왜 신속히 손을쓰지못해 단한명의 목숨이라도 더건지지못했는가。또예비군、민방위조직의 활용한계는 어디까지인가。의문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현지조사를 다녀온 관계자들의 말은 워낙 돌발적인 사태인데다 어두운 밤이었던점을 이유로 들고있다。

총1천5백81m의 범행경로를 5시간동안 유유히 누비고다니는 것을 누구하나 제거할수 없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경찰자체의 유기적인 출동태세가 미비돼있었고 출동후에도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지못한 훈련부족에 있다。

벽지일수록 더 강력한 훈련과 대비책이 세워져야 할것은 경찰자체의 문제지만 차제에 민방위조직이나 예비군도 유기적으로 동원될수있는 체제가 검토돼야한다。물론 대간첩작전등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져있고 경찰이 동원할수도 있지만 유사한 사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동원되는 체제를 갖추어야하고 차제에 무기관리에 대해서도 또다시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아직 禹순경의 만행에대한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그러나 정신질환적 만행이었든 이유있는 참극이었든 이러한 사태를 방지또는 제거할수있는 대책은 원통한 울음소리가 끝나기전에 이루어져야한다。더우기 경찰의 말단조직인 지서의 관리체제에 큰문젯점이 노출된이상 경찰의 상징이며 치안유지의 심장인 지·파출소의 운영에 만반의 개선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㊱

심했던 總督府의 억압

統制경제·經濟경찰 발동 비위거슬리면 마구 拘束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패가 날로 심해가는 만큼 경제공황도 심각했다。대학에서 의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한국학생들은 그러한 와중에서 개업이라도 했고 극히 드물게 취직도 했다。동창 고주서은 청진동에 고주석내과를 냈고, 주창환은 종로3가에서 개업했다。郭仁星(작고)은 세브란스의전 세균학연구실에서 일했고, 경성제대공학부를 나온 黃甲性(납북)은 경성전기(현재의 韓電) 회사에 취직했다。그러나 문과계통을 나온 대학생들은 거의가 다 실업자상태로 방황하던 때다。고시준비를 다시 할것인가, 무슨 장사라도 할것인가, 혹은 취직을 할것인가。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에는 한결같이 높은 장벽들이 가로 놓였다。1938년에서 1945년까지 8년간 조선사람들을 달달 볶은 조선총독부의 억압정치는 체험하지않은 사람에게는 실감이 나지않을것 같다。

물자결핍은 극도로 심해졌다。통제경제를 실시했고 드디어는 경제경찰을 발동해 무고한 양민들을 수없이 투옥했다。이 공포정치는 반도전역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경제경찰제도는 암거래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지 마구 구속하고 처벌할수 있는 악법이었다。착취의 수단으로 혹은 미운놈 때려잡는 수단으로도 사용됐다。우리국민들은 이 포악정치의 악몽같은 공포속에서 생활의 의욕조차 상실해버린 때다。

그러나 종로 뒷거리의 밤은 여전히 흥청거렸다。오색등불을 켜놓은 카페에서는 한국여성과 일본여성들이 다투어 손님들을 유혹했다。본정(현 충무로)에는 끽다점(喫茶店·현재의 다방)이라해서 코피와 홍차를 파는 다방들이 하나 둘 늘어갔다。

아마도 서울의 다방기원이 이때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이로부터 3년전에 이미 李箱은 종로1가에 제이·비(J·B)라는 다방을 차렸으니 퇴폐시대를 선각한셈이다。경제경찰이 살벌했던 서울의 밤거리에는 그런것에 아랑곳없이 술취한 사람들이 활보했고 명월관, 태화관, 국일관, 천향원에는 특수계급들이 밤마다 술을 마시고 흥청거렸다。

1939년 봄 어느날 본정에 있는 다방 쏘·데이(To day를 그렇게 발음했다)에서 이병일감독을 만났다。조선영화통제회사에 나가기는 하나 눈치속에 무위도식이 일과라고 한다。통제경제는 영화계에도 극심했다。필름통제, 약품통제, 기타 모든 물자는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보면 몇사람 안되는 한국인 감독들이 무슨일을 할수 있겠는가。

나는 당분간 예술을 방관하기로 결심했다。묵묵히 소시민생활을 영위하면서 영화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 자위하는수 밖에 별 도리가 없다。일본군어용영화「군용열차」와 柳致眞각본, 윤봉춘감독의「圖生錄」, 방한준감독의「성황당」이 나왔으나 다 영화이전의 것들이다。이때야말로 한국영화의 황무지 시대다。

◇日帝의 경제통제정책은 영화에도 파급, 어용영화제작이 고작이었다。사진은 1939년에 제작된「성황당」의 한장면.

朴是春과 같은집에 下宿 도피생활 나는作詞 그는作曲 술로 고통달래

영화배우 현순영의 집에서 거소를 南山館으로 옮겼다。우미관뒤 청계천변에 일본식2층 목조건물이 있다。일본노파가 경영하는 하숙집이다。이층의 꽤 큰방을 빌어 당분간의 숙소로 정했다。2층에는 작곡가 朴是春과 영화배우 金信載(南宮雲이란 예명으로 이구영감독의「아리랑 그후이야기」에 출연, 작고)들이 들어있고 아래층에는 일본인 노부부가 살고있다。

박시춘은 밤이 늦도록 혼자 가요곡을 만들곤 했다。기타소리가 내 방까지 가늘게 들려온다。박시춘의 가요곡을 지어내는 섬세한 감각이 마음에 들었는 것도 그 때문이다。남이 흉내낼수 없는 가락을 가끔 악보에 남긴다。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곡이 후일 많이 나왔다。「경상도 아가씨」「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등등 그의 독특한 센스는 감히 따라갈수 없는 특징이 있다。그와 가까운 친구가 된것도 바로 이때며 내가 그를 좋아한 것도 이때다。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도록 우리들은 같이 기타를 즐기고 음악을 좋아했다。때로는 내가 가사를 쓰고 그가 곡을 붙여서 술값을 장만하기도 했다。달빛이 청계천 물에 반짝이는 여름밤에는 그런대로 도시속의 자연정서를 느끼면서 우리들은 취해 남산관으로 돌아오곤 했다。

國際SF映畵際서 「世界戰爭」등 2편 최우수작 공동受賞

폴란드의「세계전쟁」과 유고의「은하계에서 온 방문객」이 제3회국제공상과학영화제에서 공동으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린 동영화제에서 피오트라·스콜리감독의「세계전쟁」은 작품상외에도 최우수감독상·최우수남우상·최우수시나리오상·최우수촬영상등 5개부문을 휩쓸었다。【AP】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나비

〈作家〉 崔貞熙

千字春秋

宋原네 집에 갔더니 장난감 나비들이 窓가에 높이 달려있었다。山중이어서 그런가, 바람이 일지않는데 나비들은 춤추듯 흔들렸다。

『저거 어디서 생겼어? 동화같구나』

『장난감 가게 있던데。엄마 좋아할줄 알았어。가지구 가』

『그건 왜。여기 둬라』

『또 사든 되잖아』

『안된대두。그냥 둬 둬라』

나는 이제 곧 태어날 채원의 아이를 떠올리며 굳이 말렸는데 그 며칠 뒤, 채원이는 끝내 내방 窓가에 달아놓고 갔다。빨강 노랑 보라 청색 진초록 모두 다섯마리다。

窓을 열기만하면 그것들은 폭풍처럼 극성스러웠다。마루방 종이등 고리에 걸어 보았다。종이 등을 켜면 묘한 현상이 일어난다。나비 한마리가 흰빛으로 변하는 것이다。지금도 흰나비는 나를 슬프게 만들고있다。

내가 아주 어리던때, 흰나비를 보면 상주가 된다는 소리가 있었다。내가 상주가 된다는 말은 우리 어머니가 죽는다는 말과 같다。딴곳에 가서 딴 살림을 하는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죽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우리집 바로 가까운 곳에 송분네 참다리밭이 있었다。참다리가 꽃을 피울쩍이면 나비들이 왕창 몰려든다。나는 숫제 눈을 처닫고 나가고 싶은 밭을 보지않으려고 했다。그러던 중 어느날 눈을 잠깐 떴는 짬새, 기가차게도 흰나비를 보아버린 것이다。-어쩜 좋아。나는 한달음으로 송분네 참다리밭으로 달렸다。흰나비를 보았더라도 더 많은 흰나비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상주를 면한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이었다。노랗기만한 참다리 밭 머리에 온종일 서 있은 내게는 세상이 노랗기만 했다。줄곧 흘러내리는 눈물도 노랗기만 할것 같았다。

宋原이가 修晧이를 데리고 집에 왔을때 수참이는 종이등 고리에 매달린 장난감 나비를 유난히 쳐다보고 했다。

『우리 수참이 장난감을 할머니가 가져서 미안해』

내 말에 수참이는 벌쭉 웃었다。사연을 알고 있다는 듯이。

한국일보 詩壇

새가 오는 날

許世旭

우리집 찌그만 뜰
쥐똥나무 술술한 가지에도
갈국 새들이 와서
새벽을 흔든다。

새들의 눈엔
우리가 사는 뜰이
선정릉의 숲 숲이나
북한산의 골짜기와
다를바 없고,

꿈길처럼
아련한 벌판
전신주 가느다란 철사와도
다를바 없고

사철 바람에 풍덩찬채
어디를 가나
휑히 비어버린 하늘과도
다를바 없기로

새가 오는 날은
내 집이 숲이요, 벌판이요,
비인 하늘이어라。

광고문의 구독신청 533·2361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온타리오 어류 시험계획

온타리오는 낚시로 유명한 곳이다. 온타리오정부는 어류연구와 시험계획을 통해 이 귀중한 자원을 항상 점검한다. 시험조사는 온타리오의 1,102 호수와 강에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발행되어 아래와 같은 안내책자로 수록되었다.

GUIDE TO EATING ONTARIO SPORT FISH
Northern Ontario, Lake Superior, Lake Huron

GUIDE TO EATING ONTARIO SPORT FISH
Southern Ontario and the Great Lak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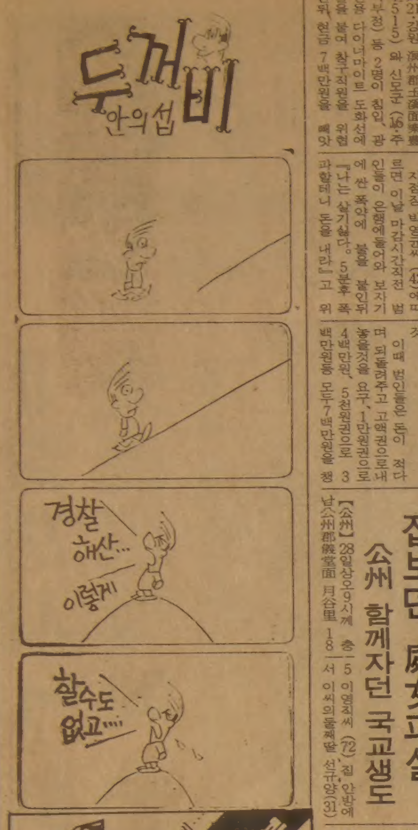
지금 1982년도 책자를 얻을 수 있다.

이 안내책자는 아래의 3곳중 가까운곳에 가서 무료로 얻을수 있다.

THE ONTARIO MINISTRY OF THE ENVIRONMENT
THE ONTARIO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THE ONTARIO MINISTRY OF NORTHERN AFFAIRS

또한 6월에 휴양지의 Brewer's Retail Store나 LCBO Store에서 얻을수도 있다.

환경성 Hon. Keith C. Norton, Q.C., Minister
Ontario
천연자원성 Hon. Alan W. Pope, Minister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痛恨의 마을 그傷處는…

江原은행 東海지점에 갱
鑛夫등 2명 TNT에 불붙여
7백만원털어 逃走하다 잡혀

【東海】28일하오4시께 강원도東海市松亭洞 강원은행 東海지점에 광부 이재학씨(21·강원 旌州郡玉溪面樂豊里515)와 신모군(18·주거부정) 등 2명이 침입, 광산용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 불을 붙여 창구직원을 위협한뒤 현금 7백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뒤쫓아간 은행원 최영수씨(26)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지점장 박영균씨(42)에 따르면 이날 마감시간직전 범인들이 은행에 들어와 보자기에 싼 폭약에 불을 붙인뒤 『나는 살기싫다. 5분후 폭파할테니 돈을 내라』고 위협, 출납계행원 이수희양(20)이 겁에 질린채 1천원권으로 2백만원을 건네주었다는 것.

이때 범인들은 돈이 적다며 되돌려주고 고액권으로 내놓을것을 요구, 1만원권으로 3백만원, 5천원권으로 3백만원등 모두 7백만원을 챙겨 주머니에 넣고 불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창구위에 올려놓은채 달아났다.

박지점장은 이들이 나가자 다이너마이트의 심지를 뽑아 창밖으로 내던져 폭발의 위기를 모면했고 은행원 최씨는 즉시 이들을 추격, 은행앞 10m지점에서 범인 이씨를 덮쳐 붙잡았다. 【聯】

집보던 處女피살
公州 함께자던 국교생도

【公州】28일상오9시께 충남公州郡儀堂面月谷里18―5 이영직씨(72) 집 안방에서 이씨의둘째딸 선규양(31)과 같은 마을에사는 이모일씨(39)의 둘째딸 정화양(11·의당국교5년)이 가슴에 예리한 흉기로 찔려 숨져있는것을 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에 따르면 27일하오 이웃 斗滿里에사는 친구집에 놀러갔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보니 집을보던 딸 이양과 이웃집아이 정화양이 예리한 흉기로 가슴을 3~4회씩 찔려 피투성이가 된채 숨져있더라는것.

선규양은 혼자 집을보는게 무서워 이웃집에부탁, 정화양을불러 함께자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피해품이없고 숨진 선규양이 지금까지 미혼인점을들어 평소 이양을 흠모해온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펴는한편 인근 불량배의 우발적인 소행도 가상, 수사를펴고있다. 【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93·2361

◇빈자리 숨진 文炳敦군의 책상위에 한송이 꽃을 올려놓은 坪村국교3년 어린이들이 울음을 삼키며 묵념하고 있다. 【臨時取材班】

"復舊할수없는" 人禍복구
永遠한 아픔…相扶相助안간힘
宮柳面그후

【宜寧=임시취재반】광란이휩쓸고 지나간 慶南宜寧郡宮柳面의논밭과산천에 농촌의일손을재촉하는 봄비가 내렸다。골목골목에는아직도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못한 흐느낌들이 터져나오기도 하지만 조상전래의 옥토에서상부상조를 미덕으로알고살아온 주민들은 이엄청난 비극을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끈질김」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비명에 간 후모처 자식곁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운 주민들은 28일 아침부터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고 장례절차에 밝은 마을노인 60여명이 피해가정을 돌며 장례일을 돌봐주었다。또 피해를 모면한 군내이웃面에서도 청년들이 상여꾼을 자청, 트럭을 타고몰려와 새마을부녀회원들과함께 주민들의 장례일을돕고있다。

한편 졸지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된 어린이들은 이웃집 어른들이 맡아 돌보고있다。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한 마을노인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것들의 아비、어미가 돼야지。모두 우리마을자식들 아닌가』며 눈물을 흘렸다。

또 坪村里새마을회관에 마련된 합동안치소에는 28일아침부터 부모를잃은 학생들과 이들의 학우들이 몰려들어 분향했고 각마을 부녀회원들은 이엄청난사고로 宮柳面으로 몰려든 전국각지의 공무원、조문대표단、보도진등 1천여명의 외부손님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대접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고 대책본부는 군청을 통해 棺등 운구장비와 장지를 마련해주는 한편 주민들에게 29일까지의 3일장을 독려하고있는데 일부유가족들은 계속 내린 봄비로 장지준비가 미흡하고 운구장비등이 아직 부족하여 3일장은 어렵고 5일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있다。

坪村里이장 金鎭煥씨(40)는 『주민들이 예상보다 빨리 충격을 벗어나가고 있으며 수습이 순조롭다』고 말하고 『이번비에 못자리와 어린답배를 손봐야 하는데 참으로 아까운비』라며 안타까와 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28일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망자 1인당 6백30만원、부상자 1인당 3백50만원의 조위금을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했으며 장례비로 이미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바있다。

父母잃은 학생들에 卒業까지 學費면제

한편 문교부는 28일 宜寧사건으로 부모를잃은 학생들에게는 현재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때까지 학비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하고 전국교직원과 학생들로부터 조위금을 모금키로했다。

한편 李奎浩문교장관은 부모를잃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5백만원을 경남도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學友잃은 朝會 "경찰관 아저씨가…"
"우리가 저애들 아빠·엄마 돼야지"

이날 날이 밝자 富林、鳳林등 인근 面의 청장년 4백여명이 참극을 당한 宮柳面을 찾아왔고 郡새마을부녀회원 40여명도 넋을잃은 피해가정을 위로하며 음식을 준비해주고있다。

상중에 또다시 떼죽음을당한 文斗出씨 상가의 맏사위 柳正五씨(39)도 『산사람은 살아야한다』고 가족들을 격려、28일아침 장례를 치렀다。

宮柳面내의 각급학교들은 이번사고로 8명의 학우를 잃었고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날 아침조회에 전교생과 교사들이 모여 각학교별로 추모위령제를 지냈다。

3명의 어린이를 잃은 宮柳국교의 위령제에서 6학년 2반 전종찬군이 애도사를통해 『아 슬프고 슬픈 일이다。평소 존경하는 경찰관아저씨에게 부모와 급우를 빼앗겼다。불러도 대답이없는 친구야 고이잠들어라』며목메어흐느끼자 장내는 울음바다로 변했다。

한편 坪村국교는 이날교내 게시판에 「불행한일로 목숨을 잃은 친구와 부모님들의 명복을빌고 부상당한 이웃의 빠른 쾌유를 빕시다」는 게시문을 걸고 입원부상자들에게 위문편지보내기 운동을시작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학생은 의령중학교에서 신청순、박미혜양、박재철、박조일등 4명、宮柳국교에서 신수정양(3년)、박현숙양(4년)、坪村국교에서 문병돈군(3년)、의령종고 김주동(2년) 등이다。

弔慰金 6억넘어
宜寧참사 쌀·라면·광목등 全國서 답지

宜寧사건수습대책본부에는 全斗煥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위문금품이 계속 답지, 28일하오 현재 6억3천6백73만원의 위로금과 쌀 라면 광목등 많은 위문품이 전달됐다。

위로금은 全대통령이 2억3천9백만원、내무부장관 1억4천7백만원을 비롯、국무위원들 2천만원、안기부장 1천만원、부산시장이 2천만원을 보내왔으며 이밖에도각 도지사·시장·군수、사회단체등에서 위문금품을 보내고있다。

殺人魔의 行跡 3.5㎞
어제 現場검증

【宜寧=임시취재반】宜寧사건의 현장검증이 28일상오11시부터 경남 宜寧郡宮柳面土谷里 현장에서 崔相曄대검부장검사、李鍾燦검사등 군·검·경 합동수사반에의해 宮柳지서에서부터 禹순경이 자폭한 坪村里 徐仁洙씨(65)집을 마지막으로 3시간30분동안 실시됐다。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날 현장검증에서 합동수사반은 禹순경이 무기를 탈취한 宮柳지서를 시작으로 희생자 집집마다 찾아 당시 범행상황을 검증했다。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희생자 가족들은 수사관들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누구를믿고 살아야하느냐면서 울부짖었다。

합동수사반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행시간을추정하기위해23군데의범행경로 3.5㎞를 걸어서검증、이날 하오2시30분께모두마쳤다。

이날 현장검증은 첫번째회생자가났던 지서앞노상―宮柳우체국―鶴谷里梅谷어린이놀이터―李씨집앞논두렁―시장통담배가게―부산식육점―정미용실―유동숙씨집앞길―유동근씨집―陳興利씨집―田遠培씨집―金柱同씨집―진옥임씨집―雲溪里시장통―봉황식당―朴仁吉씨집―반신석씨집―文斗出씨집(초상집)―허차석씨집―徐仁洙씨집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고함소리도들려 일가족4명이 희생당한 봉황식당에서는 합동수사반이 도착했을때 비보를듣고 부산·大邱·馬山등지에서 달려온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바람에 한때 검증이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禹순경 腦조직 檢査

【宜寧=임시취재반】宜寧경관총기사건 수사본부는 28일 禹範坤순경의 시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뇌세포나 신체에 이상이있었는지를 가려낸후 유가족에게 인계키로했다。

경찰은 우순경이 신체에이상이 없이는 이번같은 만행을 저지를수 없다고 판단、뇌조직검사를 하기로한것이다。

豫備費서 緊急배상
액수 곧 결정

정부는 이번「宜寧사건」으로 숨지거나 부상한 사상자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예비비에서 배상금을 지급할계획이다。

경제기획원당국자는 28일 宜寧사건 사상자에대한 국가배상은 내무부나법무부가 배상지급요청을 해오면 예비비에서 긴급지원할 예정이라고밝히고 그러나 배상규모가법으로 정해져있지 않기때문에 관련부처간의 협의를거쳐 결정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판례에의하면 3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리고있는 30세의 농업종사자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사망했을경우 2천1백만원까지、중상인 경우 1천만원、경상엔 실비기준치료비를 배상했던 전례가 있다。

◇殺人魔 禹範坤 서울시경경비단에근무할 당시우통을 벗어젖힌 범인 禹範坤순경。우람한 체격에 거친 성격이 단번에 느껴진다.

"그는 制服입은 亂暴者"
特等射手자랑…학생땐 자칭 "주먹王"
宮柳서 4개월간 마을사람들 民怨도

【경남宜寧=임시취재반】「宜寧사건」의 禹範坤순경(27)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기 보다는 무례하고 난폭하며 불만에찬 젊은이라는 인상을 현지주민들에게줬다。禹순경이 서울에서 근무하다 宜寧경찰서宮柳지서로 부임한것은 지난해 12월30일。그후 사건을 저지르기까지 4개월동안 禹순경은 평소 괴팍한성격에 술을 좋아했으며 3~4세 아래인 청년들과 자주 어울렸다。

그러나 상관이나 손위사람에겐 인사도 잘 안하고 받지도 않는등 거만하게 행동、나쁜 인상을 주었다。

鶴谷里주민 金모씨(24)에 의하면 禹순경은 술자리에서 자신이 학교다닐때 주먹왕이어서 학생회장후보들은 꼭자기에게 인사를 할정도였다고 자랑하는가하면 운동도 만능이어서 태권도 유도등의 단수를 합치면 10단이 훨씬 넘는다고허세를 부려왔다는것。

실제로 禹순경은 키가 1m73㎝의 건장한 체격에 유도、육체미운동、축구、씨름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禹순경이 동거해온 田末順씨(26)와 알게된것은 지난 2월로 田씨집에서 키우던 닭을 도둑맞아 이 사실을 신고하려고 田씨가 宮柳지서를 찾아갔는데 이때 禹순경이 접근、처음 알게됐다는것。

禹순경은 다음날 田씨집으로 찾아가『같이 살게해달라』며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가 장모에게 끌려나가기까지한 강심장의 젊은이였다。

禹순경은 田씨를 알게된후 처가에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강요、마지못해 1백25cc짜리를 사주었는데 이튿날 밤 위병 朴모씨(22)와 오토바이 경주를 벌이다 논바닥에 처박히기도 했다。

禹순경은 평소에도 특출한 사격술을 자랑했는데「사격만은 끝내주는 사람」으로 통하고있다。

禹순경은 거의 매일 지서 앞에서 공기총으로 사격연습을 해왔는데 20m정도 떨어진 나무위의 참새는 백발백중이며 10m거리에 담배꽁초를 놓고도 명중시킬정도다。

九死一生
아내와딸, 친척들 함께잃은 柳東根씨

이런 罰받을짓 한번도 한적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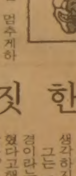
柳東根씨(46·雲溪里 新溪부락11·농업)는 우리시대의 평범한촌부이다。그가 지금 坪村부락 산마을의 27명이숨진 참극의 슬픔을 대표한다。

논 다섯마지기의 농사와 마을입구의 조그만 가게를 경영하는 그는 25년 고락을같이한 부인과 꽃다운 나이의 세째딸을 함께 잃었다。

부인 李慶連씨(45) 3녀 點順양(20)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이웃에살고있는 형님댁 아우댁의 4명의 살붙이를 함께잃었다。

『째지게 가난하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야 좀살아보려했는데…』

그는 울고있지는 않았다。



극도의 슬픔이 울음을 멈추게하고있는듯했다。검게 탄 얼굴、떡 벌어진 어깨는 산골짜기마을 宮柳面의 대표적인농사꾼임을 말해준다。

그는 정말 단란한 생활이 시작될무렵 모든것을 한꺼번에 잃었다。하루전인 26일 부부는 처음으로 釜山의 며느리집에 나들이가서 하룻밤을 보낸뒤 돌아온지 하루만에 참변을당했다。부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먼거리 여행이었다。

그가 총소리를 들으며 허겁지겁 집에 당도했을때 부인은 대문간에서 딸을 부둥켜안은채 피투성이、싸늘한 죽음으로 변해있었다。

柳씨는 집에서 5백m떨어진 마을회관에서 하오8시40분께 반상회를마치고 친구들과함께 정육점에들렀다。그곳에서 술몇잔을 나누고있을때 면재무계장이 황급히 달려왔다。재무계장은 『순경이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고있다』고 말한뒤 『도망가라』고 충고했다。

柳씨가 이말을듣고 정육점담을뛰어넘다시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탕」하는 총소리가 뒤따랐다。촌각의 차이였다。후에야 알았지만 柳씨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가족 3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柳씨는 친구2명과 개울가로 내달아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1시간20분을 숨어있다가 총성이 멎은후 집으로 돌아왔다。

제가족이 당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날이밝으면서 범인이 禹순경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말문이 막혔다고했다。조그만 시골마을이어서 그들은 조석으로 얼굴을 마주치곤 했던 것이다。

27일밤 柳씨는 부인과 딸의빈소를 차렸다。그리고는 찾아간 기자에게 소주한잔을 권했다。『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읍니다。내가 이런벌을 받을짓을 한적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그렇다。그는 아무리 뜯어봐도벌을받을 이유가 없는「너무나 착한 농민」이었다。잘못이 있다면 禹순경같은「짐승」을 키워낸 이시대에 같이살고 있었다는 사실뿐일 것이다。【李鍾九기자】

친구毒殺 金品강탈

서울東部경찰서는 28일 친구를 독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趙모군(18·공원·서울江東區馬川洞)을 강도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趙군은 지난 23일밤10시15분께 서울城東區聖水2街749 연립주택 가동202호에 세들어 사는 친구 趙在浩군(19·야채행상)을 찾아가 함께 맥주를 마시다 趙군이 화장실에간사이 극약을 맥주에 타 숨지게하고 현금 1천원과 전자시계 양복상의등 5만원어치를 털어 달아났었다는 것이다。

江原大生 7명구속

【春川】강원도경은 28일 강원대학생들의 반미·반정부불온 유인물 살포사건과 관련、황기연군(22·사범대 역사교육학과3년)등 학생6명과 민간인 송민석씨(22·무직·春川市後坪洞)를 국가보안법위반등혐의로 구속했다。【聯】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화~금 11:30AM~12PM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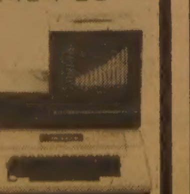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 PM~4 AM
토~일: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977—9734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425—5656(Miss. 정)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 영 림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流星의 賦 <37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㉕

4월에 상륙하여 6월도 그믐이 가까울 무렵 왜군은 팔도강산을 거의 석권(席卷)하여 그 기세 자못 높았지만 지휘자들의 심정엔 차츰 낭패의 기색이 돋아났다. 그들 나라에서의 싸움과 전혀 양상이 달랐던 것이다. 그들 나라에선 오늘일성(一城)을 함락하면, 억일 항복이 있고, 항복이 있으면 그 지방의 백성은 모조리정벌군의 장군 앞에 숨복(慴伏)하는 것이 통례(通例)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그렇지가 않았다. 비록 팔도를 석권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점(點)과 선(線)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점과 선은 유격군(遊擊軍)에 의해 언제 공격 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놓여 있었다. 그런 까닭에 점령지라고 해도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나 조선 팔도에 깔아 놓으면 요요한 모래알일 수 밖에 없었다. 설혹 2백만의 대군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사정은 같을 것이다.

연일 승전(勝戰)을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인 숫자만 늘었지 실리(實利)라곤 없었다. 조선 사람을 다 죽인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왜적은 비로소 늪과 같은 전쟁에 빠져들었다는 생각으로 초조하게 되었다. 그런 사정을 본국에 있는 풍신수길이 알 까닭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정을 본국에 보고할 수도 없었다. 왜적의 장군들 가운데도 특히 소서행장과 우희다수가는 어떠한 술책을 써서라도 화의(和議)할 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굳어져가고 있었다.

그런 무렵에 홍계남의 서장을 받은 우희다수가는 내심 솔깃했다. 그래서 신림에겐 수 삼일 후 대답을 하겠다고 하고 계남의 청대로 한성에서의 그들의 행동에 자유를 주었다. 십명 내외의 사람으로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멸시감(蔑視感)이 작용한 것도 사실일 것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우희다는 홍계남의 편지를 막료들에게 보이며

『무인(武人) 홍계남이 훌륭한 줄은 일찌기 알고 있었지만 문인 홍계남의 면목이 이처럼 선명한 줄은 제야 알았다』

고 하고

『참된지하 백세의 인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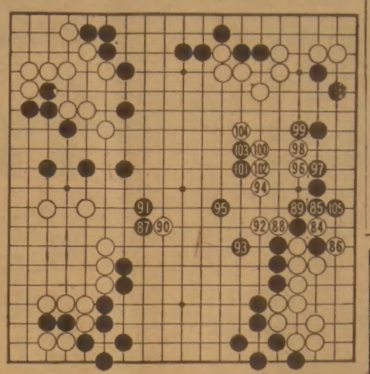
는 대목을 높은 소리로 낭송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료들은 홍계남과의 회의교섭엔 강력하게 반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8局 第5譜 84~105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 鄭壽鉉 〈2勝3敗〉
黑(7段) 河燦錫 〈2勝2敗〉



鄭4단이 부담감없이 선배의지도를 받는마음으로 두게된 이바둑은, 전보에서 두차례나 의문수를 연발하는바람에 대세를일거에 그르치고 말았다. 그리고 본보에서는 그 頹勢를 급속도로 가중시키며 일로 패배의길을 치닫게된다.

우선 白84로 우변에서 白1점을 잡은것이 설상가상이었다. 하변에 형성된 黑의大家가 더욱 중앙으로 확장되는 마당에서는 84보다 87의곳에 日字로달려나와 뒤늦게나마 黑세를 견제할 시기였다.

87의곳은 말하자면 피차 절대적요충인데 黑에게 이곳마저 허용해서는 절망상태다.

鄭4단은 그제야 용기를 떨치며 白88쪽을 일단 선수로 두더니 90으로 거세게 치받는다. 88과90이 어떤연관성을 내포하는지 觀戰子로서는 좀 이해가 안간다. 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이곳을 파괴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없기 때문임은 분명하다.

白軍, 敗北의 길로

그렇지만 철옹성같은 黑의 진영속에서는 밖으로 달아날수가 없어보이니 아무래도 제자리살림을 꾀해야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는지.

한편 黑도 白의 背水작전에 말려들어서는 큰일이다. 黑91로 뻗어 이쪽 白1점을 묶어놓고 白92에는 黑93, 95. 물론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白도 그제는 94이하로 혈로를 뚫게되었는데 白104때 河7단은 우변을 가만히 黑105로가일수해놓았다. 이리하여 黑은 만사휴의. 鄭4단은 예서부터 장렬한 전면적옥쇄를 기하게되지만 그것은 다음총보로 미룬다. 【一凡】

北韓, 不參통고 킹스컵蹴球에

【방콕27日=聯合】오는 금년도 킹스컵 축구대회참가의사를 밝혀왔던 北傀는 대회개막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不參을 통고, 泰國축구협회(FAT)를 곤란한 입장에 빠뜨렸다고 아누·로미아논 FAT회장이 27일 말했다.

로미아논회장은 『그들이 수차례에 걸쳐 참가를 다짐해놓고 최근에 와서 갑자기 電文으로 불참을 통보해왔다』면서 北傀가 불참해도 대회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숱차례 참가하겠다고 해놓고 대회며칠전 불참을통고, 대회조직위를 난처하게 만든바있는 北傀는 최근 방콕 국제무역박람회에서의 平壤곡예단공연취소등 잇달아 망신을 당한데다 한국대표팀에 승산이 없을것으로 판단 갑자기 대회不參결정을 내린것으로 현지 축구관계자들은 추측하고있다.

오는 5월1일부터 17일까지 방콕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15회 킹스컵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泰國 中共 말레지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등 아시아 8개국에서 모두9개팀이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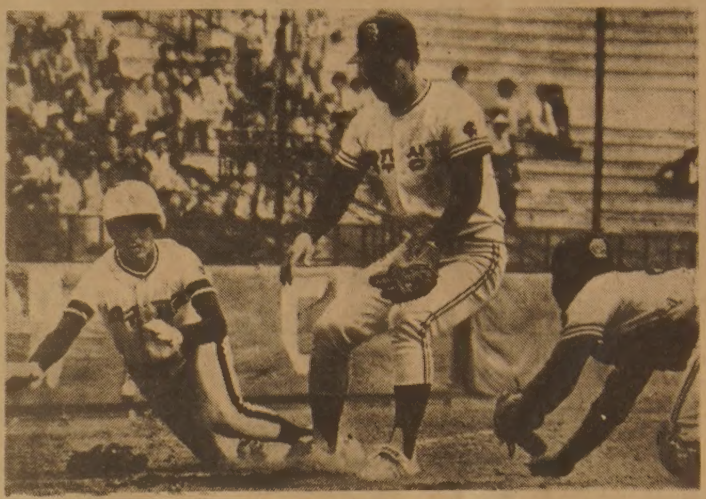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신예 大邱高, 8강先着

9회초 소나기5安打… 光州商을 大破 8-2

8회까지 2對2로 팽팽히
光商실책에 순식간 6得點

대통령盃 고교야구



◇데드볼出壘 생환 — 大邱高-光州商대전. 5회초 2死후 데드·볼로 진루한 大邱高 9번 洪聖淵(左)이 1번 姜起雄의 중전안타와 홈송구를 틈타 홈인하고있다.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터진 집중5안타로 신예 大邱高가 光州商高를 8-2로 누르고 가장먼저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8강에 뛰어올랐다. 大邱高는 8회까지 2-2로 팽팽히 맞서다 光州商高의 수비 실책을 틈타 9회초에 잡은 마지막 승기를 적시 5안타로 살려내 순식간에 6득점, 뜻밖의 대승을 거두었다.

中央商은 1회전서 馬山商高를 초반집중타로 두들겨4-1로 낙승, 2회전에 진출했다.

大邱高는 8강의 준준결승에서 信一-東大門商 승자와 4강진출권을 겨루며 中央商은 2회전서 全州商과 대결한다. 한편 27일 1회전서는 仁川高가 慶南高에 7-2로 대승, 2회전에 진출했다.

프로야구탓인지 28일 서울운동장을찾은 고교야구 팬들은 1만을넘긴 정도였다. 초입尹夢龍감독의 과신탓 이었을까? 光州商은 8회까지 4개의 2루타를포함한 8안타로 6안타의 大邱를압도하면서도 결승1점을 얻지못해 애를태웠다.

5회말 1死후 내야안타로 나간 3번 鄭仁鎬가 4번孫文坤의 우월2루타로 홈인하지 못한것도 尹감독이 다음타자를 너무믿은 때문이었지만 3루주자 鄭이 5번 朴聲鉉의 투수앞땅볼에 3루와홈 사이에서 협공당하다 횡사, 패배의 어두운 조짐을 보여주는것 같았다.

2루주자 孫文坤역시 1루전제를 틈타 3루를 돌아 홈인하려다 분사, 光州商의 황금같은 찬스는 병살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열세에 몰려 있던 大邱는 9회초 선두 5번 全鍾和가 포볼을 고르고 6번 金哲民의 중전 안타, 타구를 놓친 光州商 중견수의 실책을 틈타 홈인, 결승점을 올렸고 金역시 보내기 번트에 이어 8번 金龍洙의 타구를 잡은 光州商 투수 孫文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홈을 밟아 승리를 굳혔다.

大邱高는 이어9번 洪聖淵이 유격수 실책으로 살아나가면서 찬스를 살려 연속4안타로 4점을추가, 8-2로 대승했다.

◇3일전적

▲1회전

마산상고	000	001	000	1
중앙고	202	000	00×	4

▲2회전

대구고	000	011	006	8
광주상고	010	000	100	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8>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㉜

경양식도 함께파는 젊은이 취향의 찻집은 밝고 한산했다.

목이 긴 병에 안개꽃인지 라일락인지 아슴푸레한 꽃이 만개한 액자가 걸린 벽을 배경으로 오목이는 잔뜩 긴장해서 오뚝 앉아있었다. 인재는 그녀가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있나를 손아귀에 쥐고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것이 즐거웠다.

『오랫만예요. 그 동안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인재는 큰선심이나 쓰는것처럼 이렇게 의례적인 찬사를 보내고나서 씩 웃었다.

『아이, 몰라요』

오목이 얼굴을 살짝 붉히고 목을 흔들었다. 작은 몸때문인지 화장기 없는 얼굴때문인지 수수한 옷차림때문인지 오목이는 만날때 마다 초라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 초라한 인상이 오늘따라 심하지않을뿐더러 미더워지도모른단 생각까지 들었다.

오목이의 초라함은 인재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고 으스대고싶은 마음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수지의 화려한 미모가 그를 자주 주눅들게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오목이는 눈을 내리깔고 예쁜 포장지에 싼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 크고 억세보이는 손이었다. 인재는 문득 그 손을 만져보고싶은 충동이 생겼고 그의 그런 충동이 비애처럼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참을수없는 느낌으로 손을뻗어 오목이의 손위에 포갰다. 꿈틀 놀라면서 손을빼려던 오목이 전혀 장난기없는 그의시선에 부딪치자 꼼짝을 못했다.

『선물을 사왔으면 보여줘야지』

인재는 슬쩍 손을 미끄러뜨려 선물상자를 잡았다.

『아, 네 변변치않은 거예요』

『풀러봐도 되겠어요?』

『집에가서 풀러봐요』

『고마와요. 졸업식에 왔더라면 좋았을걸』

『갈까말까 망설였어요.』

『그게 그렇게 망설일만한 일인가요?』

『제가 워낙 숫기가없어 그런가봐요. 겁도 많구요』

『그까짓 졸업식에 겁까지 날건 또 뭘까?』

『제가 인재씨를 친하게 여기는 것만큼 인재씨는 저를 친하게 여기지 않을까 봐 겁이 났어요』

오목이의 시선은 겁장이답게 자주 흔들렸지만 맑고 애틋했다. 인재는 그런눈이 처음이 아닌것처럼 느꼈다. 미처 연모의 정을 나타내보일 새도없이 놓쳐버린 소년시절의 소녀의 시선이 그랬던가? 그러나 그의 소년시절에 그런 소녀가 실제로 있었던건 아니었다. 그의 소년시절은 지겨운 가난이 전부였다. 그래도 소년이었기에 꿈이 있었고 꿈속에서만난 소녀가 그랬던가?

『뭘 생각하고 있어?』

『아, 아무것도』

『졸업식에 사람들 많았죠?』

『오만에서 십만쯤』

『어머머, 누가 전체 손님말인가요. 인재씨한테 딸린 하객말이죠』

『글쎄 한 스무명쯤』

『그렇게 많이요?』

『글쎄말예요. 남이 다 하는 졸업식이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이라고… 시골사람들이라 그런가봐. 졸업식이 장원급젠줄 아는지 창경원 벚꽃놀인줄 아는지 아뭏든 한마을의 일가문중이 다 동원됐더라니까. 우리 형님, 차비만해도 아마 큰돈 깨졌을걸요』

湖 호심 心

HO SHIM

KOREAN & JAPANESE RESTAURANT

다운타운 토론토의 심장부에서 여러분은 한식을 즐길 수 있읍니다.
한인이 경영하는 새로운 현대적인 식당. 맛있는 한식과 일식을 토론토에서…

제일 큰 고층빌딩내 『호심』에서 한번 시식 하십시요.

놀랄만한
저렴한 음식 가격!

*예:	불고기	$4.95
	튀김만두	3.95
	비빔밥	4.50
	스시	3.75~9.95
	기타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11시~오후10시
*토요일은 예약시에 압니다.

*FAST TAKE OUT SERVICE
*단체 도시락 주문에 응합니다.
*단체 연회 특별봉사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 ☎368-0686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약 국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구독신청(월~토) ☎ : 533－2361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조 지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광고문의 533－2361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한국안내광고

? 광고주를 찾읍니다.

구 인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분. 11:00 p.m~7:00 a.m(Midnight Full Time) 8:00 a.m~4:00 p.m(Sunday Only)
Rexdale×Kippling 전화 : 743-3822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59 Mr. 박
지렁이 잡으러가는 지역에 좋은 농장이 많음

씨알 한국인 여름학교
동쪽과 미시사가에서 운전하실 분 두분 구함
영어, 수학과 또는 운동코치를 겸하므로 Full Time Job이 되겠으며 자필이력서를 150 Madison Ave. 로 보내주십시요. (주당: $180)

Shoe Repair Store에서 일하실분 구함
263 Morningside Ave.
전화 : 281-2217 (저녁7시이후 연락바람)

일본식당 Kitchen Helper 구함(남자분)
4 Avenue Rd. Park plaza Hotel
전화 : 960-9035

입주하셔서 아기들 (4살, 1살)보아주실분 구함.
특별히 우대해 드리겠읍니다.(Jane+Weston)
전화 : 447-1460 (세시이후 연락바람)

일본식당에서 밤에 접시닦으실 분 구함. 월.화.수(오후4시~밤11시) 오후2시지나서 전화해 주시기 바람
전화 : 421-6016 (Masuda)

청소 하청하실분 구합니다.
월 $500씩 두곳. 경험 1년이상 있으신분
Hwy 401 × 이스링톤. 전화 : 493-0320, 444-1322

아이스크림집에서 일하실분 구함.(Full Time)
혹은 맡아서 운영해 주실분 구함.
전화 : 752-4766 (Mr. Bang)

Store Manager 구함
월 $2,500 이상 보장. 몬트리올지역. 유학생도 가함.
전화 : 932-7775, 524-7775

꼭히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지렁이잡이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지불함)
전화 : 656-8937 (Annagickopoulos)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7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홍), 531-0773(김)

남•녀 캐셔나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138 Mr. 리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이틀마다 지불함. 영어로 문의 바람.
전화 : 534-8121 Dennis

신원보증을 확실히 할수 있는
21세~25세 사이의
가정을 내집같이 돌봐주실 용모단
정한 여자분 구함
전화 : 298-6117, 598-4143

Full Time Helper 구함
시간: 3:00 p.m-12:00 p.m 위치: Queen×Triller
전화 : 532-6143, 532-9638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5천불+4천(티켓), Asking $29,900
렌트 $400, 6년리스, 800 sq.ft(스넥바포함)
위치 : 오샤와(Oshawa) 주인이 유럽으로 떠나기 때문에 급매 원함
Bagot Realty Inc. Realtor
전화 : 1-579-4010(B) 1-683-8154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좋은 위치에 모든 라이센스 갖추고 있는 식당급매
좌석 : 180 (Banquet Room은 따로 있음)
주매상 : $10,000~$12,000, 렌트 : $850(Mon.)
Owner will take back mortgage.
Asking : $250,000
Call Joe. 787-0491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Bloor 와 Christie에 위치한 식당(Tavern) 급매
L. A. B. O 있음. 리스 : 15년.
좌석 : 100석 (Banquet Room : 200석)
자세한것은 Peter에게 문의 바람.
전화 : 656-0011

1. 좋은자리에 새로 OPEN하는 DONUTS SHOP
현찰 $40,000 요구 리스: 20년 Rent: $2,300
아스킹 : $140,000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무스코카지역에 있는 부동산 매매
그로서리가게(과일, 채소등)와 집
가족끼리 운영하기에 알맞은 사업
큰 파킹장이 옆에 있음
※관심있으신 분은 부라운•로버트에게 전화주세요.
전화 : 789-1724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64-4431 (오후5시이후 연락 바람)

각종보석 인벤토리 SALE
세번씩 보석디자인상을 받은바있는 바루주•타바키안씨 (Varouj•Tabakian)가 처음으로 Public에게 Open하며 최저가격으로 봉사할 예정임.
107 Church ST. #400
Call "Varouj(바루쥬)" 362-0507
Open Hour : 10 : 00A•M - 6 : 00P•M

Becker 주렌 사이즈 스토아 매매(스카보로지역)
꼭 관심 있으신분은 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전화 : 755-8852

자동차 급매(가격 : $2,500)
깨끗한 미국 이주관계로 A.1 Condition의 76년도 Dodge (46,000mile)팝니다. 전화 : 533-8507 Mr. 리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사정상 급매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Milk Store)
Whitby & Oshawa 전화 : 282-7596(Mr. 황)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200-4,500, 아스킹 : $29,000+스탁
1000 Pape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Fast Take Out Food
중국음식도 메뉴에 넣을수 있음. 좋은조건의 리스
전화 : 633-2981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자동차 급매
81년도 뷰익•스카이라크 6기통•13,000Km
전화 : 249-6327 (Mr. Kim)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Variety Store 급매. 가정사정으로 인해 급매 코저함.
Rent : $350. 리스 : 10년. 주매상 : $2,500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음. 전화 : 757-6458

(매매 또는 렌트)
타 사업관계로 로타리오머신이있는 스토아와 2베드룸 급매
주매상 $3,500 좋은조건에 양도하겠음. 64 Kingston Road.

비데오 아케이드 쎄일
15대 머신 담배 Refreshment의 Licence를 지님
전화 : 266-9770

믿고 투자할수 있는 좋은기회!
급성장하는 지역의Pharmacy for sale with building.
위치: On Weston Rd. 전화 : 781-2560(Mr. Balin)

Kingston Rd. 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Hamilton지역)
주매상: $4,500. 아스킹: $45,000+스탁. 리스: 7년+10년(옵션)
리스: 7년+10년(옵션) 전화 : 1-388-4825 (Mr. 유)

자개문갑, 애기 3층장
전화 : 661-4581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하우스 렌트

콘도미니움 2BedRoom 세놓음(월 $500)
5월1일 입주가능. Islington×F inch
전화 : 745-4347

교통이 편리한 다운타운 지역.
Furnished 1Bed Room($달 180)독신환영
전화 : 763-3289, 365-1489

1 BedRoom & 2 BedRoom Apt.
College & Ossington Area.
$350-$450(M) 전화 : 531-6183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십시요.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도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 역 및 통 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보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